270.68
ㅊ442ㅈ

782
최45ㅈ
1990, c.2

宗教改革 時代의 教會Chorale에 對한 研究

-Martin Luther의 Weihnachtslieder를 中心으로-

1990年 6月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 專攻

崔 福 熙

宗教改革 時代의 教會Chorale에 對한 研究

—Martin Luther의 Weihnachtslieder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 金 善 胄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6月 日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 專攻

崔 福 熙

崔福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教授 _____ 印

副審教授 _____ 印

副審教授 _____ 印

1990年 6月 日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論 文 槪 要 ····· 1

Ⅰ. 序 論 ····· 3

1. 硏究의 目的 ····· 3

2. 硏究의 범위 및 方法 ····· 3

Ⅱ. 本 論 ····· 5

1. 宗敎改革의 原因 및 그 時代 音樂의 樣相 ····· 5

A. 宗敎改革의 歷史的 原因 ····· 5

B. 宗敎改革 당시의 르네상스 音樂의 特殊한 樣相 ····· 8

C. 宗敎改革家들의 音樂觀 ····· 10

o Huldreich Zwingli ····· 11

o John Calvin ····· 11

o Martin Luther ····· 11

2. Martin Luther 의 音樂 ····· 13

A. Luther의 敎會觀 및 神學思想 ····· 13

B. Luther의 音樂史的 배경 및 音樂思想 ····· 15

C. Luther가 音樂에 미친 영향 ····· 25

3. Luther 의 Weihnachtslieder ····· 26

A. Nun Komm,der Heiden Heiland ····· 26

B.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 31

C.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 37

D. Vom Himmel Kom der Engel Schar 42
E.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45
F.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49

Ⅲ. 結　論 53

参 考 文 献 55

Abstract 58

악 보 목 차

악보 1. Die alte Volksweise 18

2. Die eigene Weise 18

3. Ein ander Christlied 19

4. Luthers häusliche Angabe 19

5. Laut Luthers hsl. Angabe 19

6. Ein NEUES LIED WIR HEBEN AN 20

7. Nun KOMM, DER HEIDEN HEILAND 21

8. Mellisma 의 例 22

9.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원본 23

10. 내주는 강한 성이요 24

11. Nun Komm, der Heiden Heiland.(Luther 의 원본) 26

12. Joachim Heller 의 Nun Komm, der Heiden Heiland 27

13. Balthasar Resinarius 의 Num Komm, der Heiden Heiland 28

14. Antonius Scandellus 의 Nun Komm, der Heiden Heiland 29

15.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Luther 의 원본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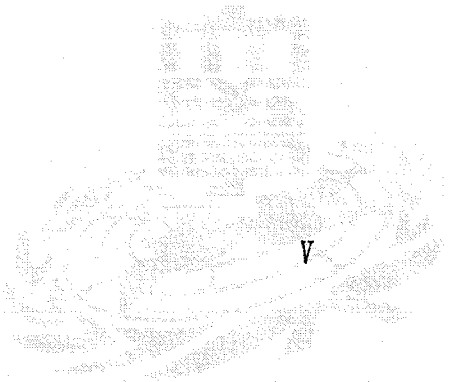
16. Matthaus le Maistre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32

17. Johann Walter 의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34

18. Ungenannter Meister 의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36

19. Luther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의 원본 37
20. Kaspar Othmayr의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38
21. Lukas Osiander의 Vom Himmel hoch da Kommich
her 39
22. Georg Forster의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40
23. Luther의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의 원본 42
24. Valentin Triller의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43
25. Ludwig senfl의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 44
26. Luther의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의 원본 ···· 45
27. Luther의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의 원본 ····· 46
28. Balthasar Resinarius의 Christum mirsollen loben
Schon 47
29. Lukas Osiander의 Christum mirsollen loben schon 48
30. Luther의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의 원본 ·· 49
31. kaspar Othmayr의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50
32. Balthasar Resinarius의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51

도표 1. 세사람의 종교개혁가들의 찬송관 12
2. Nun Komm, der Heiden Heiland 30
3.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37
4.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41
5.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45
6.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49
7.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52



論 文 槪 要

新教의 Chorale은 그 간결한 民俗的 形式과 民衆과의 親近感 그리고 직접 民衆들의 宗教心에 呼訴하여 教會音樂의 실제적 求心點이 되었다.

獨逸은 Renaissance 期間을 통하여 音樂의 主流에서 소외되어 왔었는데 그 創作의 源泉을 Chorale 에서 얻어옴으로해서 새로운 音樂精神과 作曲의 技法을 발견하게 되었다. 特히 Chorale의 創始者라고하는 Luther의 音樂은 後代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硏究는 新 教會音樂의 母體가 된 Luther 의 원작 Chorale중에서 Weihnachtslieder (성탄절 노래)를 中心으로 그 時代의 여러 作曲家들에 의하여 編曲된 曲들을 비교하고 分析해 보았다.

곡명과 작곡가들은 다음과 같다.

곡명 1. Nun Komm, der Heiden Heiland

작곡가 ㅇ Joachim Heller (1518 - 1590)

ㅇ Balthasar Resinarius (1485 - 1544)

ㅇ Antonius Scandellus (1517 - 1580)

곡명 2.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작곡자 ㅇ Matthäus le Maistre (1505 - 1577)

ㅇ Johann Walter (1486 - 1543)

ㅇ Ungenannter Meister

곡명 3.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작곡자 ㅇ Kaspar Othmayr (1515 - 1553)

- Lukas Osiander (1534 - 1604)
- Georg Forster (1510 - 1568)

곡명 4.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작곡가
- Valentin Triller (? - 1573)
- Ludwig Senfl(1486—1542)

곡명 5.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작곡가
- Balthasar Resinarius
- Lukas Osiander

곡명 6.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작곡가
- Kaspar Othmayr
- Balthasar Resinarius

Ⅰ. 序　　論

1. 研究의 目的

Luther 가 活動했던 時期는 Renaissance 末期로써 作品 양식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音樂的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世俗化 人間化 表現化 感覺化의 경향이 강해졌고 世俗音樂이 貴族들의 保護아래 새롭게 중요한 位置를 차지했으며 教會旋法은 教會音樂과 世俗音樂의 양면에서 아직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나 長調 短調의 調性으로 향하려고하는 傾向이 작곡가들에게서 이미 胎動하고 있었다.

宗教改革이 音樂상에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Chorale의 誕生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宗教改革 時代의 音樂에 對하여 特히 그 時代에 活動했던 作曲家들의 Chorale 을 中心으로 研究해보려고 한다.

2. 研究의 범위와 方法

첫째, 宗教改革期 즉 Remaissance 시대를 중심으로 宗教改革家들의 音樂觀을 研究한다.

둘째, Luther 의 音樂史的 背景 및 그의 音樂觀이 音樂史에 미친 영향에 對하여 研究한다.

셋째, Luther의 Weihnachtslieder 를 中心으로 그 時代의 서로

다른 작곡가들의 Chorale 의 編曲들을 分析해서 宗教改革期의 合唱曲에 관해서 硏究한다.

A. Nun Komm, der Heiden He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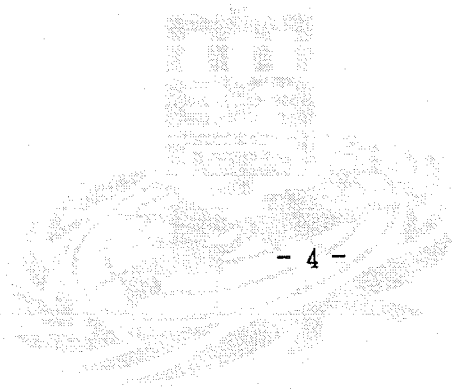
B.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C.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D.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E.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F.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Ⅱ. 本　　論

1. 宗教改革의 原因 및 그 時代 音樂의 樣相

A. 宗教改革의 歷史的 原因

宗教改革의 理念은 분명히 中世 基督教의 崩壞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동시에 中世 基督教의 淨化와 基督教 理念의 부흥에 그 궁극적인 目的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宗教改革의 理念은 과거의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것보다 오히려 참된 基督教 전통의 回復에 目的을 두었다고 하겠다.

Latourett. K.S. 교수는 "改新教徒들은 스스로를 革新者로 간주하지 않았고 教會의 淨化와 순수한 基督教 信仰에로의 回復을 追求했던 改革者로 자처했다"[1] 고 그의 저서에서 지적했다.

또 한편 Bainton. R. H. 교수도 역시 "宗教改革이 中世의 社會구조와 社會體制를 산산이 부서뜨렸음에도 불구하고 宗教改革은 宗教의 부흥을 가져왔고 基督教를 更新시켰다"[2] 고 주장했다.

우선 宗教改革이 일어나게된 歷史的인 要因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教皇權의 没落을 들수 있는데 教皇이 불란서, 영국, 독일의 教會들과 聖職者들로 부터 갖가지의 方法으로 稅金을 받았으니 다음과 같은 種類들이다. 즉 任職稅(annates)[3] 特殊任職稅(annates)[4]

註1) Latourett.K.S. A History of Christianty. p.701.
2) Bainton.R.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p.39.
3) 새로 임명된 감독이 첫 해 수입금 전부를 교황에게 바치는세.
4) 감독직에 空席이 생길 경우 다른 곳의 감독을 공석에 임명하고 또 다른 곳의 감독을 새로운 空席에 任命하므로해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첫 해의 수입을 모두 받아들이는稅.

空席任命保留稅(reservations)[5] 待機稅(expectations)[6] 誓約變更稅(commutations)[7] 聖職賣買(Simony)[8] 免罪符(indulgences)[9] 등의 다양한 方法을 실시함으로 아비뇽(Avignon)教皇廳은[10] 많은 財源이 생기게 되어 사치하고 타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서 獨逸과 영국이 교황청에 불만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教皇이 로마로 떠나자 樞機卿들에 의해서 새로운 教皇이 선출되어 교황청은 大分裂을 겪게 되었으며 結果的으로 教皇權이 没落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國家主義를 들 수 있는데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페인 영국 그리고 불란서는 國家로서 形成되어가는 과정에서 政治的으로 독립을 이룩하게 되자 神聖로마 제국과 中世 教會에 맞서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유럽 各國에서 일어난 國家主義와 民族意識의 形成과 發芽

註5) 감독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교황이 감독임명을 보류하고 새 감독이 받아야 할 수입을 교황이 가로채어 받아들인 稅.

6)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年老한 감독이 사망할 경우)감독직을 바라보며 대기하는 후보자들에게 任命을 약속하고 그들로 부터 미리 받아들인 稅.

7) 성직자가 行한 서약의 해약을 허락하는 代價로 받아들인 稅.

8) 성직을 매매해서 생긴 수입.

9) 십자군 時代부터 시작되었는데 聖者들이 쌓은 공로는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죄와 구원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는 教理에 근거해서 聖者들의 공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에게 教皇이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을 免하게 된다고 했다.

10) 불란서 남단에 있는 지명으로 1305년부터 1378년에 이르는 70여년 동안 로마에서 교황청이 옮겨와 있었다.

는 教皇權의 몰락을 촉진시켰고 궁극적으로는 改革運動을 成功으로 이끈 배후의 힘이 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15 세기 중엽부터 시작하여 16 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이태리를 비롯하여 스페인 불란서 영국 독일 등 각지에서는 희랍 로마의 古典을 연구하며 中世教會 구조의 矛盾과 不道德을 드러내면서 人間의 존엄성과 個人의 內面的 敬虔과 倫理生活 및 社會改革을 부르짖는 人文主義(Humanism)가 일어나서 중세 教會와 스콜라 신학을 正面으로 도전하고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教皇權과 스콜라 신학의 崩壞를 촉진시켰으며 실제로 宗教改革을 위한 준비적 役割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세 교회의 권위를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스콜라 신학이 둔스 스콧투스(Duns Scotus)[11]와 옥캄(William Occam)[12]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崩壞되자 中世教會는 그 권리를 지원해 줄 思想的 기반을 잃게 되었다.

다섯째, 중세교회가 지나치게 制度化되고 教會生活이 形式化되어 가는 동안 교회의 의식과 禮典을 통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直接的인 聯合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의 活力을 되찾으려는 경건운동 내지는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註 11) 1308 년 11 월 8 일 켈른에서 사망, 출생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2) (1280 - 1349), 뮌헨에서 사망, 근대적인 인식론의 개척자.
프란체스코회에 속한 스콜라 신학자, 둔스 스콧투스의 제자.

여섯째, 경제적인 要因으로는 獨逸의 장원경제[13]가 沒落하고 새로운 도시경제[14] 즉 신흥자본주의가 위력을 떨치게 되어 자유 手工業이 발전하였으며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상인 길드(The Guild of Merchant)와 手工業者들이 위주가 된 同職者組合(Zumft craftguild)[15]이 결성되었으며 東인도 新항로의 發見으로 海外무역을 하게 되었고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으로 귀금속이 流入되어 화폐의 과잉으로 경제적인 혼란과 농민사회운동으로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B. 宗教改革 당시의 Renaissance音樂의 특수한 양상

Renaissance 時代는 봉건 사회가 해체의 내림길을 걷고 봉건 귀족과 教會의 세력이 쇠퇴하기에 이른 시기였다.

도시와 市民 계급이 점차 머리를 들게 되었으며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國民의 國家가 성립되어 가는 때였다.

Renaissance의 지도 정신은 人文主義(Humanism)이며 이는 인간을 하나의 靈과 智가 있는 생물로 보고 그 성격을 연구하려 하였으며 이탈

註13)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장원을 단위로 하여 영주의 경제권을 形成하고 있는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체제이며 中世 초기를 지배해왔다.

14) 상업 공업이 출현함으로 나타난 교환경제로 同職者의 영리적 목적하에서 단단히 결속되어진 경제 단체이다.

15) 영업의 독점, 기회균등, 생계의 확보등의 공동목적에 따라서 결속된 組合이다.

리아에서 시작되었다.

音樂은 전체적으로 世俗化 人間化 表現化 감각화의 경향을 띠었으며 14세기 프랑스의 마쇼(Machaut 1300-1377), 이탈리아의 란디니 (Landini 1325경-1397)등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프랑스 동북부에서 번영한 부르고뉴 악파(Burgundian schoo)에서 분명하게 그 특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1450-1600년에 걸쳐 플랑드로 지방에서 번성한 플랑드로 악파(Flemish School)는 Renaissance의 유럽 음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유명한 작곡가로는 O.Lassus (1532-1594) Palestrina (1525-1594) H.Hassler(1564-1612) H.Schutz(1585-1672)등이 있었으며 Madrigale, 이나 Ballata, Caccia 등의 세속적인 曲과 Motet, Acapella, Mass등의 교회 음악이 생겼다.

그런데 教會 音樂·世俗 音樂은 같은 작곡자에 의해 작곡되었는데 教會音樂에서는 世俗 音樂의 선율이 채용되었고 世俗 音樂에서는 教會 音樂의 기교와 기법 등이 응용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는 音樂의 표현력을 크게 높였다.

16세기는 宗教改革의 時期였는데 Luther (1483-1546)는 로마 教會에 반대하여 獨逸語로 성서를 번역하였고 대위법적인 구조를 떠난 和聲的인 Chorale (讚頌)을 教會에서 자국어로 부르도록 했다.

宗教改革이 音樂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 Chorale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Chorale은 合唱團의 전유물이었던 音樂을 대중들이 부를수 있으므로 해서 하나님을 직접 讚揚할 수 있도록 할 目的에서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며 J.Walter (1496 — 1570), Hassler(1564 — 1612) 등의 작곡가들이 있고 또한 1500년경 악보 인쇄가 발명되어 음악문화의 향상에 크게 공헌하였다.

C. 宗教改革家들의 音樂觀

대표적인 宗教改革家들인 Martin Luther 와 Huldreich Zwingli 그리고 John Calvin 의 音樂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모두들 신령한 讚頌을 원했다.

둘째, 자국어로 신령한 讚頌을 만들었다.

Luther 는 높은 수준의 독일어로(hochdeutsch)

Zwingli는 알레만어로(alemanisch : 스위스 지방 方言)

Calvin은 불란서어로(französish)

셋째, 聖經의 시편을 가지고 신령한 讚頌을 만들었다.

넷째, 聖經 外的인 것들로 讚頌을 만들기도 했다.

다섯째, 그들은 讚頌을 예배를 돕기 위한 장식물로 보지 않았다.

여섯째, 歌詞의 리듬과 音樂의 리듬, 歌詞의 韻律등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곱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자신들이 직접 歌詞를 쓰기도 했다.

이 세 사람의 宗教改革家들은 한결같이 新約성서의 골로새서 3장 16절 "…詩와 讚美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소서 5장 19절 "…詩와 讚美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和答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主께 노래하며"를 그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讚

頌觀에 對하여 밝히고 있다.

宗教改革家 세 사람의 讚頌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Zwingli

1.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不可하다.
2. 찬송가 가사를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된다.
3. 합창음악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
4. 합창음악을 예배시 사용은 不可하다.
5. 오르간 음악이나 기악 음악이 예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Calvin

1.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可하다.
2. 讚頌歌 歌詞를 마음대로 짓는 것은 안된다.
3. 合唱 音樂을 가정에서 하는 것은 可하다.
4. 합창 음악의 예배시 사용은 不可하다.
5. 오르간 음악이나 기악 음악은 사용할 수 없다.

Luther

1. 회중은 讚頌을 불러야 한다.
2. 찬송가 가사도 지을 수 있다.
3. 합창 음악이 가정에서도 可하다.
4. 합창 음악의 예배시 사용도 可하다.

위의 세 사람의 教會 讚頌觀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Gemeinde-freie Gesang (회중찬송)	Kirchenlied dichtung (교회찬송 짓기)	Chormusik (합창·성가용) in hause (집에서)	in Gottesdienst (예배에서)	Orgel Musik 오르간 기악 음악
Zwingli	Nein(不可)	nein	Ja	nein	nein
Calvin	Ja (可)	nein	Ja	nein	nein
Luther	Ja	Ja	Ja	Ja	Ja

위의 도표에서 보면 Zwingli 는 合唱 音樂 중에 단지 집에서만 허락하며 教會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부정하고 있다.

Calvin은 집에서 하는 합창 음악과 회중 찬송에만 可하다는 긍정적인 견해이지만 그의 이 회중 찬송론에도 다만 詩편가만 부르도록 한다는 제약이 加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Calvin교에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오르간 음악만해도 그의 주장 대로라면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비단 오르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악 음악을 뜻 한다.

또 예배에서 사용하는 합창 음악 즉 성가대 음악도 그렇다.

요즈음 한국 教會의 실정을 보면 성가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성가대 음악이 곧 합창 음악이다.

또 讚頌歌 창작에 관한 것도 당시에는 불가능했다. 물론 오늘날은 가능하다. 단지 Luther 만이 모든 教會音樂의 가능성을 可한 것으로 긍정적

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Luther는 대단한 成功을 거둔 教會 音樂家이고 教會 音樂 교육가 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찬송」이라는 과목을 학교 음악 교과과정에 편성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도 오늘날 Luther의 주장대로 회중 찬송가집이 있으며 회중들이 讚頌을 부를수가 있다.

獨逸 남부의 教會에서 사용하는 천주교 讚頌歌集에는 Luther 의 찬송이 10여곡이나 들어 있다.

더우기 자국어로 된 성경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Luther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불가능한 일 이었다.

그러나 宗教改革을 통해 Luther 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 보람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구에게 든지 자유롭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2. Martin Luther의 音樂

A. Luther의 教會觀 및 神學思想

Luther의 神觀은 神의 成肉(Incarnation) 즉 "神이 人間이 되었다"는 사실이다.[16]

지원용은 자기의 저서에서 "Incarnation 思想은 Luther 思想에

註16) 신약성서 요한 1 : 4

이르는 열쇠이다"라고 말했다.[17]

Luther의 教會觀도 역시 義認論에서 출발한다. 이는 구원론과 그리스도론과 관련되어진다.

教會는 성경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聖徒들의 交際에서 실제화된다.[18] 聖徒가 되어야 성경을 이해 할 수가 있다고 했다.[19] 教會는 영적인 교회와 조직된 교회로 구분이 되는데 영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조직된 교회는 地上에다 건립한 교회이다.

그러나 教會는 두 教會가 아니라 하나의 教會이다.[20]

教會의 外的인 표식은 洗禮나 聖晩餐과 聖經이다. 이 세가지가 있는 곳에 성령이 臨在한다.

神이 人間으로 世上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神과 人間들을 화해 시키셨으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시며 救世主라고 고백한다.

Luther의 神學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Luther의 일관된 고심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一致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것이 그의 苦心이었다.[21]

Luther는 "義人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신약성서 로마서 1장

註17)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82. p.161.
18) , 루터의 교회관, 루터의 종교개혁, p.200.
19) Ibid. p.201.
20) 지원용, 루터의 사상 p.169.
21) 왓손, P.S. Protestant 신앙원리, 이장식역. p.37.

17절에서 그의 信仰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죄인을 정의대로 심판하는 보복의 義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기만 하면 죄인을 義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義인 것이다. 여기서 Luther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一致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으며 확신하게 되었다.[22]

B. Luther의 音樂史的 배경과 音樂思想

Luther 는 1483년 11월 10일에 獨逸의 Eisleben 에서 태어나서 1546년 2월 18일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그의 대단했던 一生을 마친 위대한 宗教改革家이다.

後世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신학자, 철학자, 독문학자로는 일컫고 있으나 자신이 직접 36곡이나 讚頌歌를 지었고 改新教 讚頌歌의 創始者인데도 教會 音樂 교육자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基督論的인 讚頌이 儀式과 形式 보다도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 찬송의 福音的 성격에 있다.

宗教改革이 있기 前 獨逸은 예술의 국제 무대에 가장 늦게서야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문학 건축 회화 조각등은 옛날부터 상당한 주목을 끌어왔지만 音樂 作品은 거의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450년부터 1525년 까지 겨우 75년 정도의 기간에 네델란드 이탈리아 영국의 音樂에 대응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것은 音樂史에 있어서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註22) Ibid. p.46.

있다.[23]

독일 국민은 민요라는 形態로서 그 후 몇 세기 동안 독일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민적인 스타일의 기초를 만들어 내었다. 어느 누구도 민요가 어디에서 기원된 것인지 누구가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으나 각 처에서 사람들은 민요를 노래함으로 전해져 왔다.

민요는 獨逸 국민의 가장 자랑스러운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젊음에 찬 신선함과 건전함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독일의 Lied가 되었다.

이 時代의 작곡가는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잘 알려진 멜로디를 作曲家 자신의 수완으로 파트마다 박자가 바뀌면서 代位旋律을 붙이는 技巧를 발휘하였다.

따라서 불규칙적인 악센트와 매혹적인 연주의 스타일과 훌륭한 리듬의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16 세기의 이러한 多聲歌曲은 독일 音樂에 있어서 하나의 頂點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종류의 樂曲 가운데서 독일의 作品을 능가하는 것은 없으며 지금의 독일 Lied이다.[24]

Protestant의 教會 音樂의 모습은 Luther가 이러한 歌曲에서 idea를 얻은 것이며 Protestant운동을 추진 시키는데 있어서 音樂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

註 23) 이유선, 기독교 음악사, 서울 : 총신대 출판부, 1977. p.51.
24) 후고 라이히텐리트, 음악의 역사와 사상, 김진균역, 서울 : 학문사, 1985. p.146.

이에 본 硏究者는 Luther 의 音樂觀 (讚頌觀) 에 對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 讚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Die Musik ist das beste Geschenk Gottes.)

音樂 (讚頌) 이 人間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音樂이 人間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성경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讚美는 「내 것」으로 분명히 그 소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讚美는 「祭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드라도 그 이유는 명백해진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 Die Musik ist eine Gabe und Geschenk Gottes, nicht ein Menschengeschenk"

둘째, 讚頌으로 하나님 以外의 그 어떤 것도 讚頌치 말아야 한다.

(… allein Gottes gnade, und nicht menschen Werck Preisen.)

聖經을 보면 新約에 讚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9절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讚頌하리로다 主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비롯하여 4회 마가복음에 3회 누가복음에 10회 등 합해서 48회나 讚頌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구약성경에는 讚頌이라는 단어가 351회나 나와있다. 이렇게 400여회가 넘는 讚頌이라는 단

어 앞뒤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호와를」 「여호와께」라는 말이 꼭 붙어있는 것은 찬송을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다.

셋째, 음표가 歌詞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

(Die Noten machen den Text leb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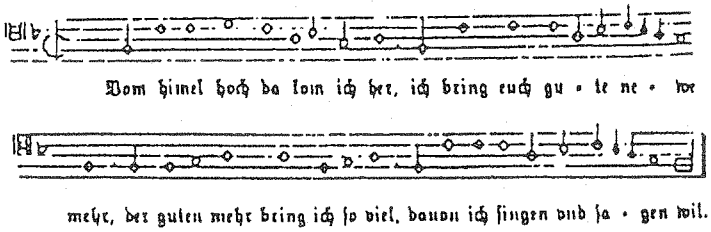
가사에 曲을 붙이거나 曲에 歌詞를 쓰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Luther 는 조금 특이하며 國民들 사이에 이미 불리어 왔던 민요 등을 사용했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멜로디가 있다.

Die melodie — Versionen

A.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a) Die alte Volksweise (im thon wie man umb krenze sin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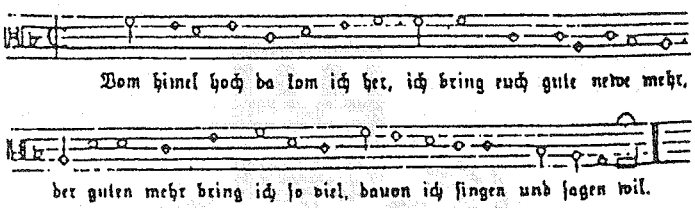
악보 1)



위의 악보는 Weimarer Ausgabe Band. 35. p. 527 에 있다.

b) Die eigene Weise

악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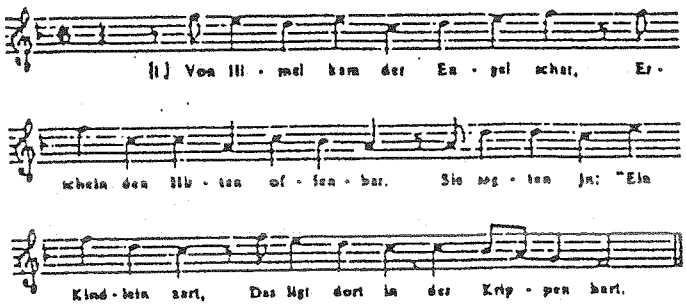


위의 악보는 Luther 의 Melody 로 추측되며 현 악보는 1539 년 Schumann 에 의해 편집된 책에서 발견된 것이다.

B.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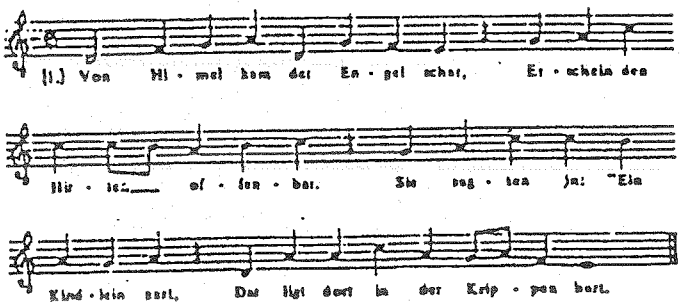
a) Ein ander christlied, 1m Vorigen Thon, Martin Luther.

악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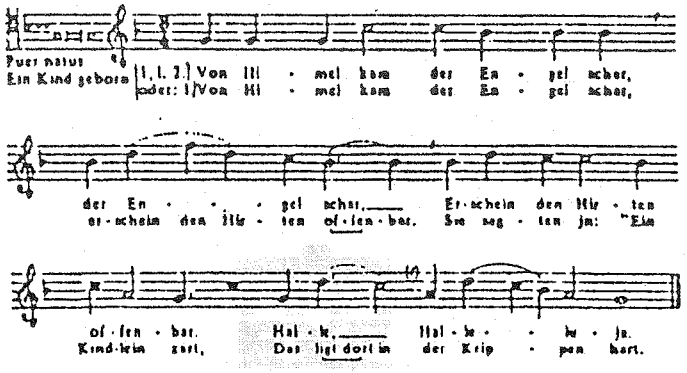
b) Luthers häusliche Angabe

악보4)



c) laut Luthers hsl, Angabe

악보5)



위 악보들은 Witlenberg Kirchen Gesanbuch (비텐베르크 찬송가)에 있는 악보들이다.

넷째, 이미 잘 알려진 노래의 멜로디를 創作에 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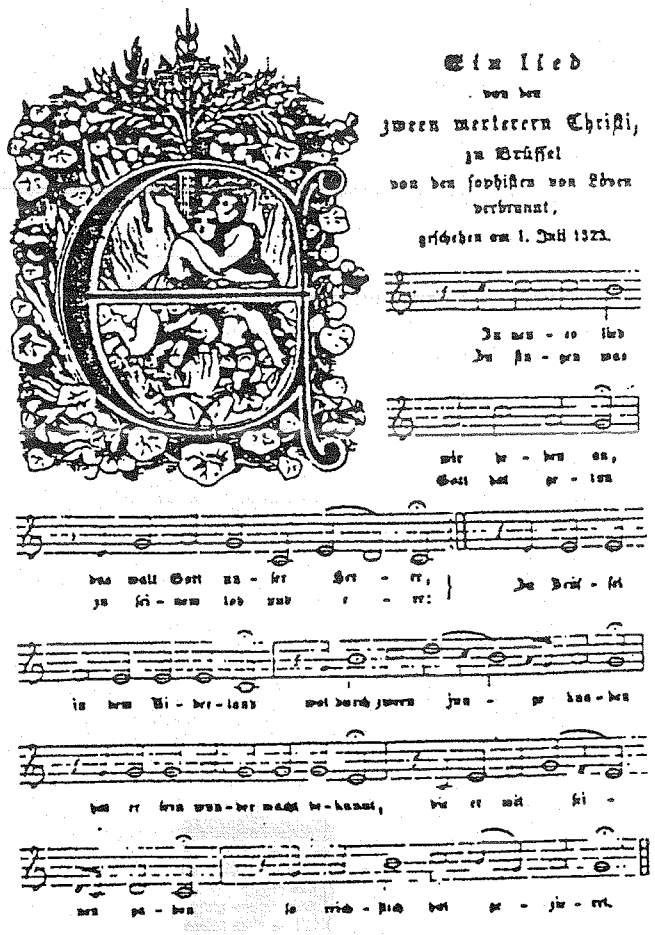
"... dem Text des Evangeliums dem ganzen volk verständlich Zu machen"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EIN NEUES LIED WIR HEBEN AN

(새 노래로 찬양하리)

악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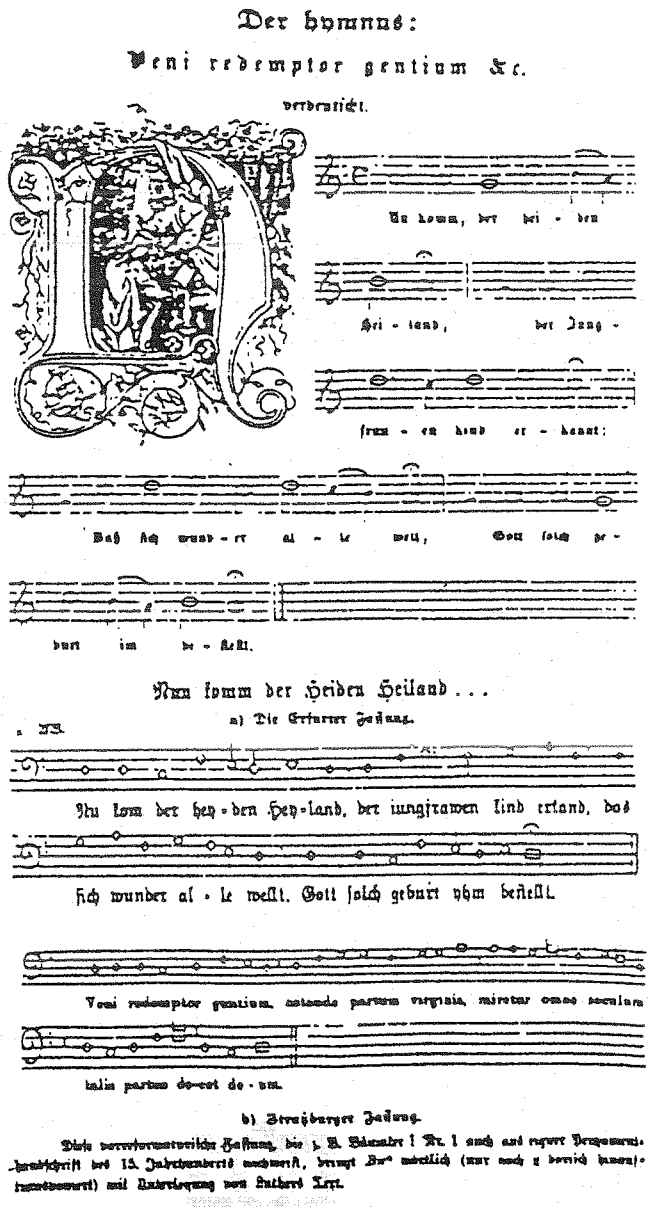


註 25) Melodiegebrauch 라고 한다.

b) NUN KOMM, DER HEIDEN HEILAND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악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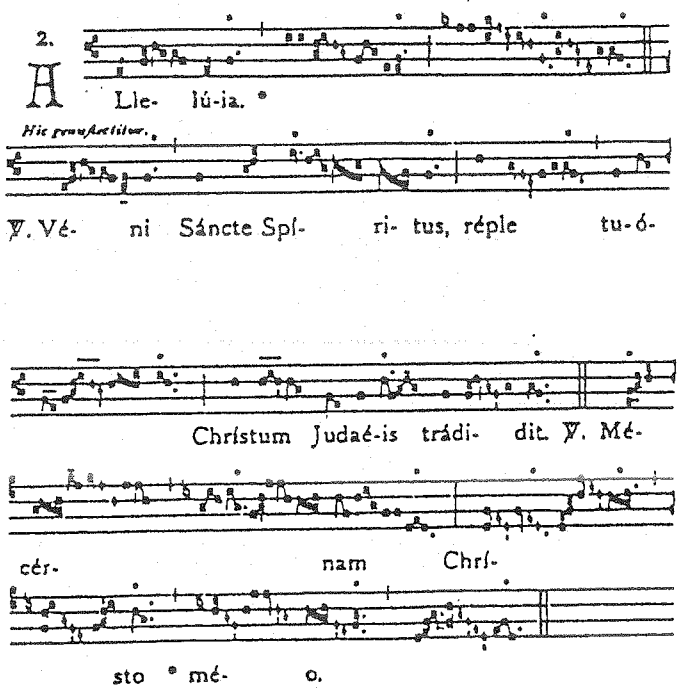
위의 악보6과 악보7의 악보는 Die Ausgabe von Philipp Wackernagel 에 의한 "Martin Luthers geistliche Lieder. 에 나와있는 악보이다. (Stuttgart 1848)

다섯째, 한 음표에 한 음절씩 가사를 붙였다.[26]

Luther 이전의 教會 音樂은 그레고리안적인 mellisma [27] 를 전통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가사는 한 절 뿐아니라 여러 절을 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층 더 살아있는 것으로 전하려 하였다.

먼저 mellisma 즉 가사가 많지않은 형태의 曲을 예로 들어본다.

악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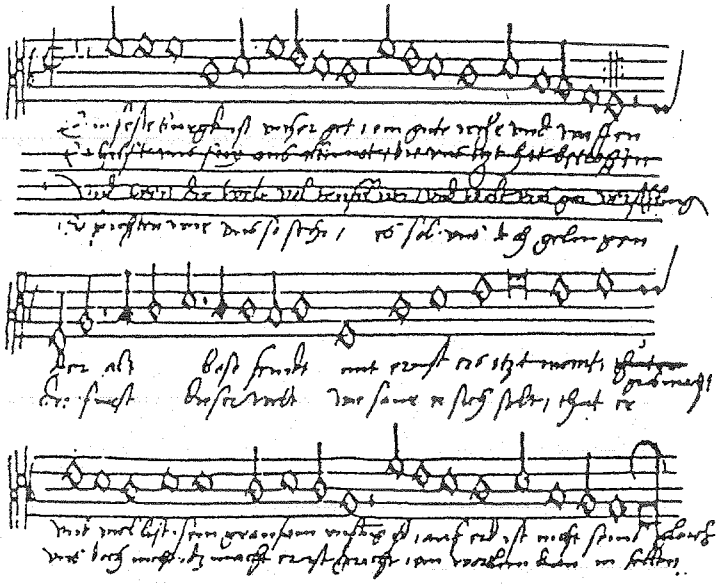
김철륜, 교회음악론 p. 87.

註 26) Syllabik 라고 한다.

27) 한 음절에 다수의 음표가 주어지는 장식적 성악곡의 양식으로 원래 그레고리아 성가의 알렐루야 作曲法에 사용되었으며 mellisma 스타일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찬송가나 트로푸스의 전형적인 作曲法이다.

이번에는 가사가 많이 붙는 형태의 例로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원본과 번역된 것을 비교해 본다.

악보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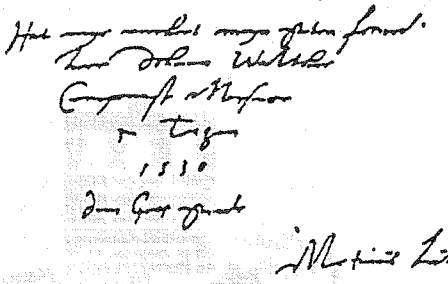


Eine feste Burg ist unser Gott,
ein gute Wehr und Waffen,
Er hilft uns frei aus aller Not,
die uns jetzt hat betroffen.
Der alt böse Feind,
mit Ernst er jetzt meint,
gross Macht und viel List
sein grausam Rüstung ist,
auf Erd' ist nicht seinsglei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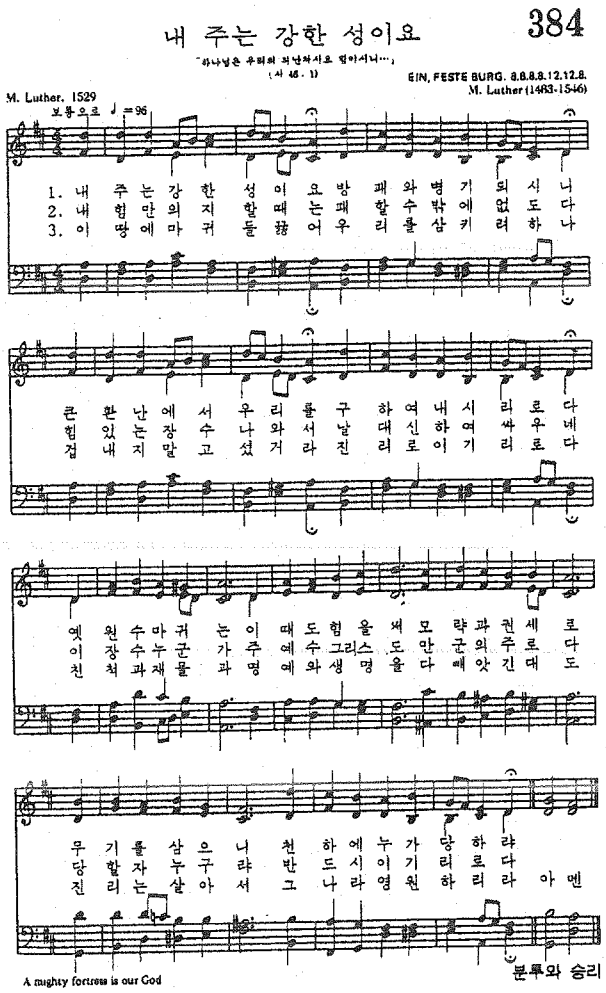
Mit unserer Macht ist nichts getan,
wir sind gar bald verloren,
es streit' für uns der rechte Mann,
den Gott hat selbst erkoren.
Fragst du, wer der ist?
Er heißt Jesus Christ,
der Herr Zebaoth,
und ist kein anderer Gott,
das Feld muß er behalten.

Und wenn die Welt voll Teufel wär
und wollt uns gar verschlingen,
so fürchten wir uns nicht so sehr,
es soll uns doch gelingen.
Der Fürst dieser Welt,
wie sauer er sich stellt,
tut er uns doch nicht;
das macht, er ist gerichtet,
ein Wörtlein kann ihn fällen.

Das Wort sie sollen lassen stahn
und kein' Dank dazu haben;
er ist bei uns wohl auf dem Plan
mit seinem Geist und Gaben.
Nehmen sie den Leib,
Gut, Ehr, Kind und Weib
laß fahren dahin,
sie haben's kein'n Gewinn,
das Reich muß uns doch bleiben.



악보 10)



여섯째, 모든 聖徒들은 모국어(Muttersprache)로 讚頌을 부르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라틴어로 讚頌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曲들을 獨逸語로 번역하였고 성경도 獨逸語로 번역하였다.

일곱째, 獨逸語로 된 많은 찬송가를 지었으며(36곡) 또 다른 음악가들에게도 의뢰했는데 Luther 를 도운 음악가들로는 Johann Walter와 Ludwig Senfl, Josquin Desprez등 여러사람이 있었다.

여덟째, 讚頌은 기쁨으로 불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信者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드라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홉째, 젊은이들의 合唱 音樂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합창 음악이 젊은이들의 신앙과 인격과 정신, 도덕적 교육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열번째, Luther 는 학교의 음악 교육과정에 최초로 「讚頌」을 넣은 교회음악 교육자였다.

당시 교회와 학교는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일날 예배시에 敎會에서 불러야 할 讚頌歌를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의 音樂 교육과정에 讚頌을 넣어서 어릴때 부터 배우도록 했다.

C. Luther 가 音樂에 미친 영향

宗敎改革은 基督敎의 歷史上 가장 큰 개혁이었으며 이 宗敎改革에 宗敎音樂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부 카톨릭 음악을 개조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대위법 구조를 배격하고 Chorale 을 敎會 音樂으로 채택했다.

Chorale의 특징은 韻律的이며 리듬이 느리고 평탄하며 선율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으며 Chorale의 語句는 聖歌의 그것 보다 더 명확하며 규칙적이고 끄는 듯한 감각의 느낌이 들며 또한 Plainsong 보다 더 和聲化되었다.

3. Luther의 Weihnachtslie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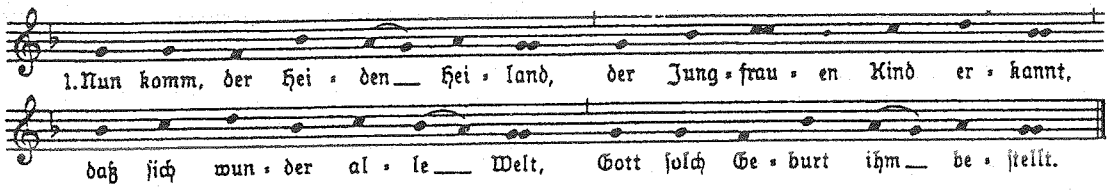
Luther의 Weihnachtslieder를 여러사람의 작곡자에 의해서 합창곡으로 편곡된 것을 성부수와 박자, 리듬, 교회선법, 조성등을 비교해 보며 편곡자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앞으로 연구하려는 곡들은 "Luthers Kirchenlieder in Tonsätzen seiner Zeit, Chrsg, Von Konrad Ameln, H.1)에 있는 곡들이다.

A. Nun Komm, der Heiden Heiland

악보11)

Der Hymnus Veni redemptor gentium verdeutſcht



1. »Nun komm, der Heiden Heiland,
der Jungfrauen Kind erkannt,
daß ſich wunder alle Welt,
Gott ſolch Geburt ihm beſtellt.«

2. Nicht von Manns Blut noch von Fleiſch,
allein von dem heiligen Geiſt
iſt Gotts Wort worden ein Menſch,
und blüht ein Frucht Weibesfleiſch.

3. Der Jungfrau Leib ſchwanger ward,
doch blieb Keuſchheit rein bewahrt,
leucht' hervor manch Tugend ſchon,
Gott da war in ſeinem Thron.

4. Er ging aus der Kammer ſein,
dem königlichen Saal ſo rein,
Gott von Art und Menſch, ein Held;
ſein' Weg er zu laufen eilt.

5. Sein Lauf kam vom Vater her
und kehrt wieder zum Vater,
fuhr hinunter zu der Höll
und wieder zu Gottes Stuhl.

6. »Der Du biſt dem Vater gleich,
führ hinaus den Sieg im Fleiſch,
daß Dein ewig Gottesgewalt
in uns das krank Fleiſch enth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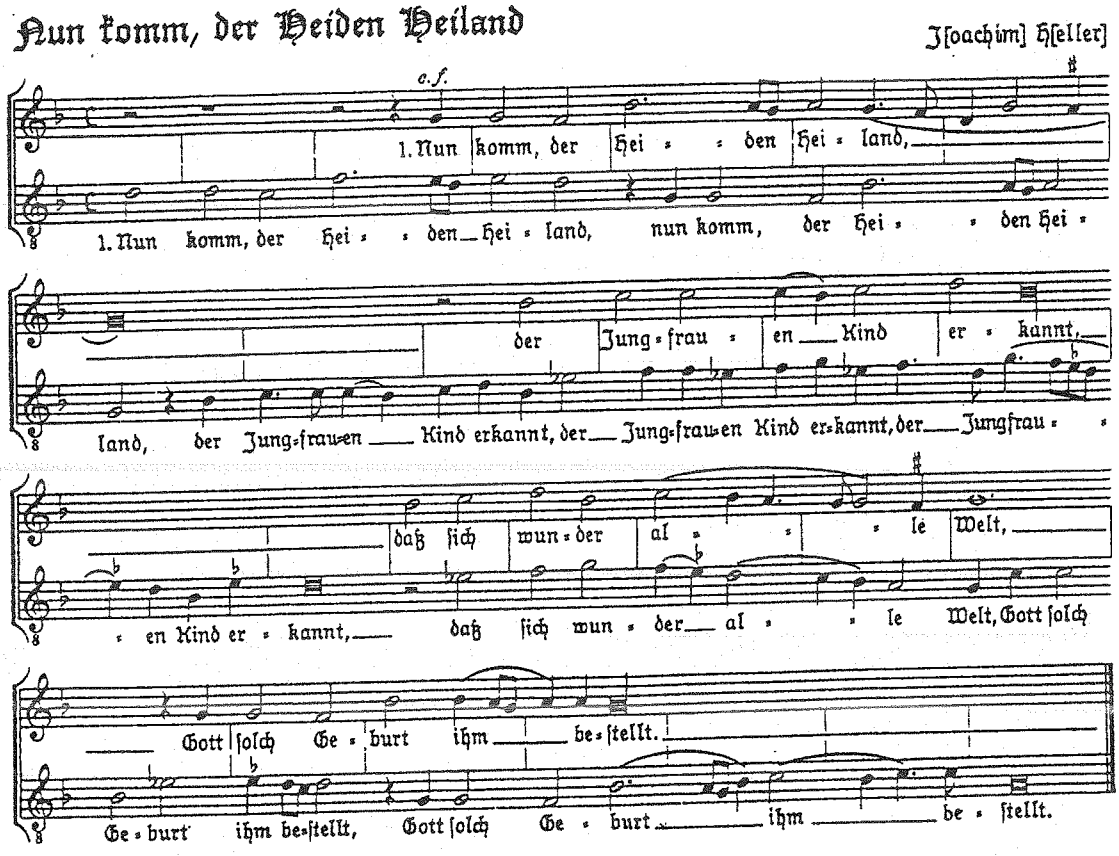
7. Dein Krippen glänzt hell und klar,
die Nacht gibt ein neu Licht dar.
Dunkel muß nicht kommen drein,
der Glaub bleibt immer im Sch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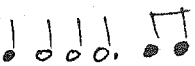
8. Lob ſei Gott dem Vater tan,
Lob ſei Gott, ſeim einigen Sohn,
Lob ſei Gott dem Heiligen Geiſt
immer und in Ewigkeit.

Luther의 원본이며 Dorian mode on F이다.

① Joachim Heller

악보12)



Joachim Heller 의 Nun Komm, der Heiden Heiland 는 2성부이며 4/4박자의 주요리듬은  이고 Dorian mode on F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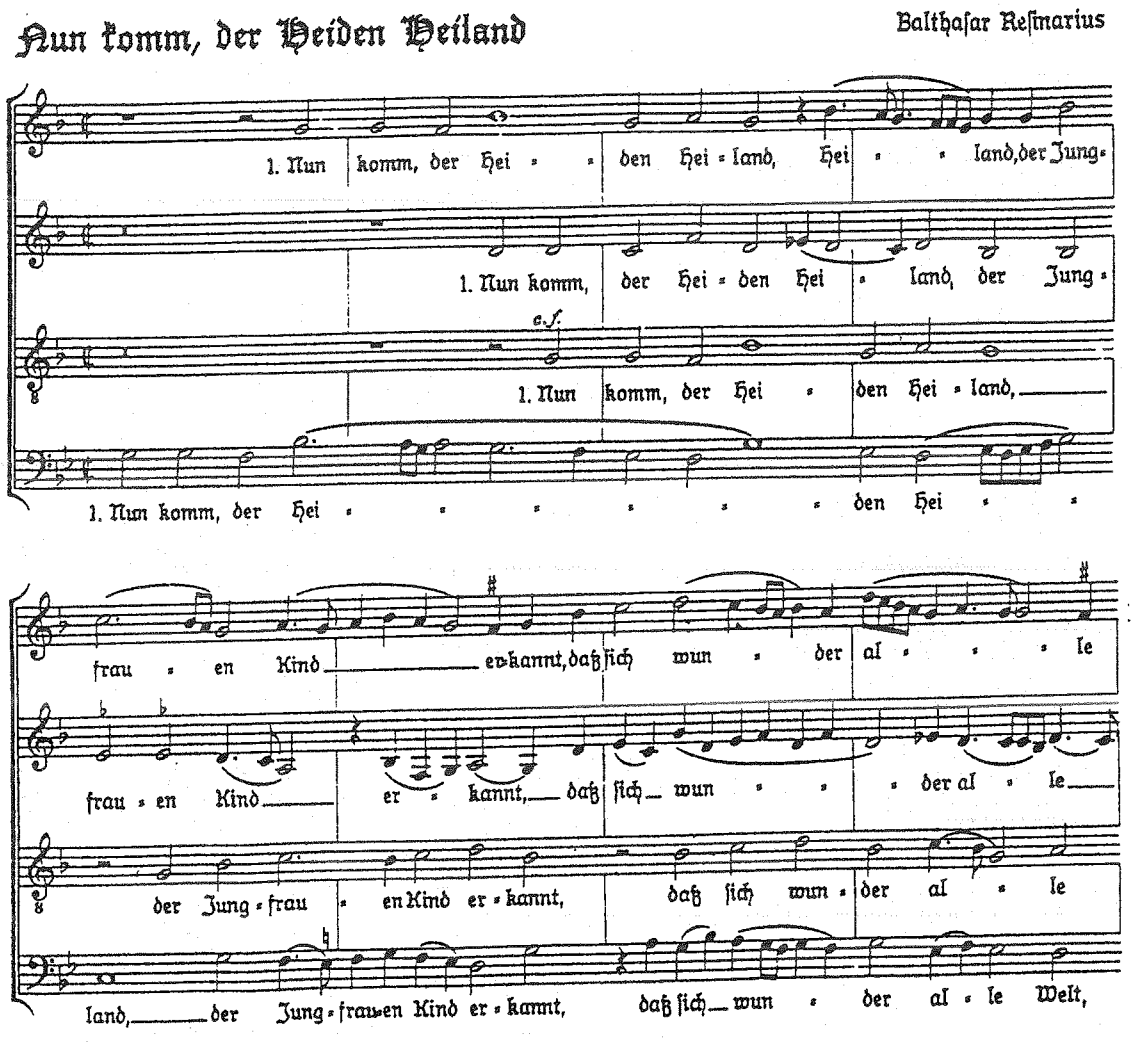
Joachim Heller (1518 — 1590)

독일의 수학자, 천문학자, 교육자, 시인, 작곡가.

1543년에 St, Egidien 문법학교 선생, 1546년에는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이 되었다. 음악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Luther의 聖詩에 曲을 붙인 bicinia가 알려져 있다.

② Balthasar Resinarius

악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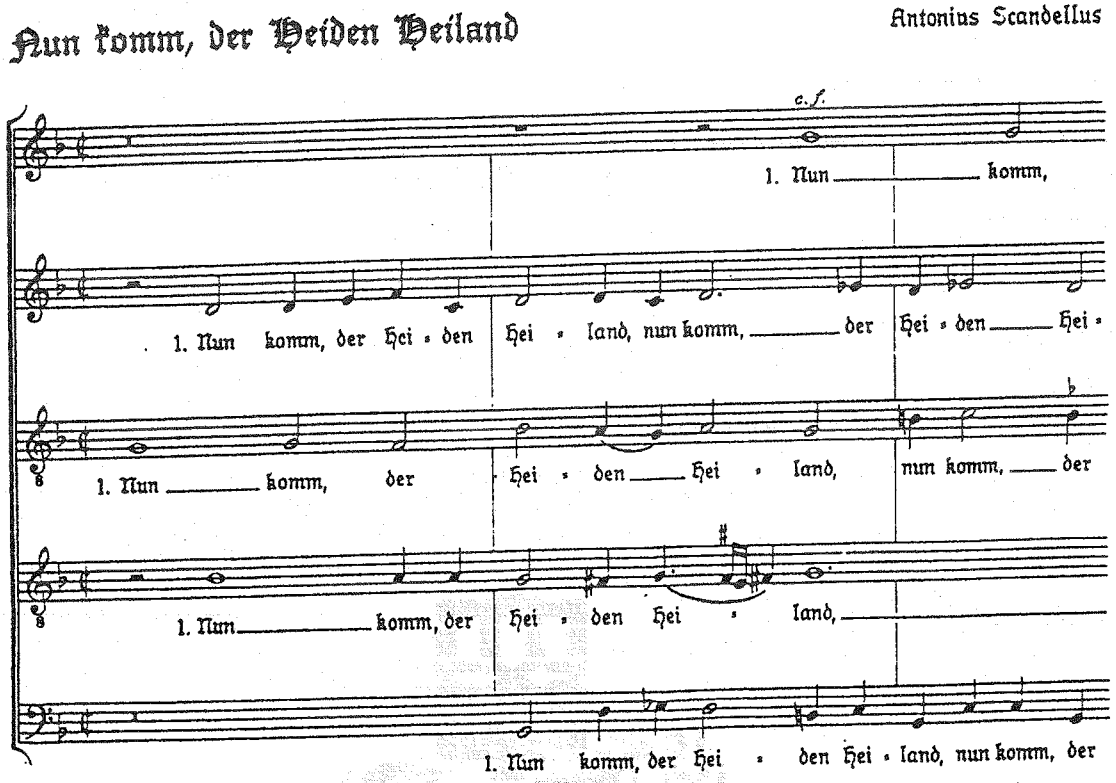
Balthasar Resinarius 의 Nun Komm, der Heiden Heiland 는 4聲部이며 박자는 2/2 박자이고 주요 리듬은 ♩♩♩ 𝅗𝅥 ♩ ♩♩ 이고 Dorian mode의 조성은 F이다.

Balthasar Resinarius (1485 — 1544)

초기 改新教 時代의 독일 작곡가이며 Bohemia의 Tetschen 에서, 출생 했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죽기 전 2년간에 걸쳐서 작곡되었는데 이 曲들은 출판을 책임졌던 Georg Rhau에 의해 출판되어서 알려졌다. 특히 Rhau는 Balthasar Resinarius 스타일의 산뜻함과 운율의 예술성을 많이 칭찬했다.

③ Antonius Scandellus

악보14)



Antonius Scandell의 Nun Komm, der Heiden Heiland 는 5聲部이며 2/2박자이고 주요리듬은 𝅗𝅥 𝅗𝅥 𝅗𝅥 𝅗𝅥 𝅗𝅥 𝅗𝅥 이며 Dorian mode on F이다.

Antonius Scandellus (1517 — 1580)

이태리의 作曲家이며 자신이 出生한 베르가모의 산타마리아 마조레교회의 코넷 주자로 있었으며 1549년에 드레스덴 궁정 예배당에 초청되었고 1549년에는 이곳의 악장이 되었다.

탁월한 관악기 연주자이며 뛰어난 악장으로서의 명성을 자랑했으며 〈요한 수난곡〉등의 미사곡, 다성가곡 그리고 칸초네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다. 위의 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Nun komm, der Heiden He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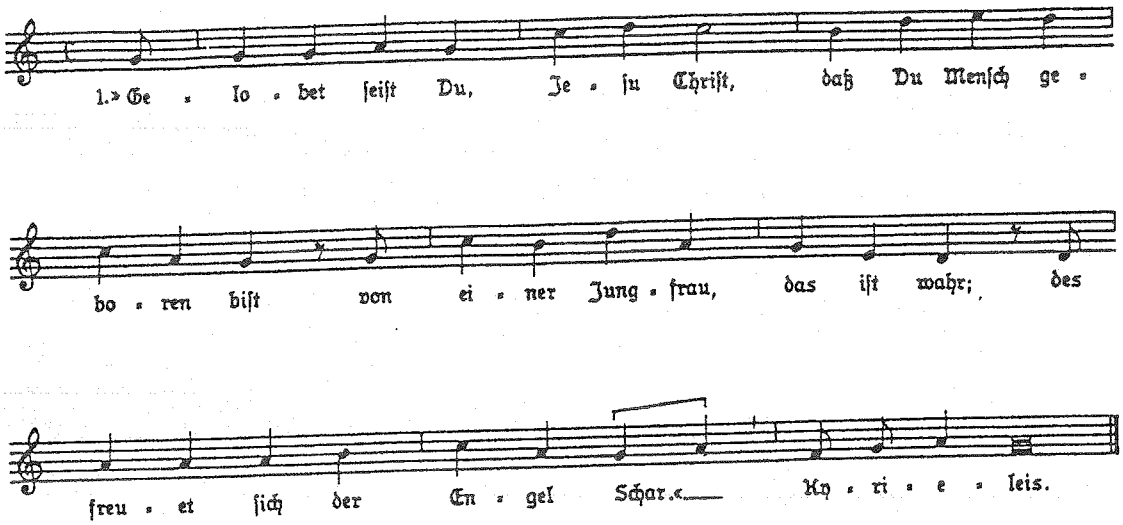
표2)

작 곡 자	Joachim Heller	Balthasar Resinarius	Antonius Scandellus
성 부 수	2 성 부	4 성 부	5 성 부
박 자	4/4	2/2	2/2
주요리듬	𝅗𝅥 𝅗𝅥 𝅗𝅥 𝅗𝅥. 𝅘𝅥𝅯	𝅗𝅥 𝅗𝅥 𝅗𝅥 𝅝 𝅗𝅥 𝅗𝅥 𝅗𝅥	𝅝 𝅗𝅥 𝅗𝅥 𝅗𝅥 𝅗𝅥 𝅗𝅥
선법과조성	Dorian mode on F	Dorian mode on F	Dorian mode on F
특 징	점음표,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2분음표, 4분음표

B.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악보15)

Ein Lobgesang von der Geburt unsers Herrn Jesu Christi



1.»Gelobet seist Du, Jesu Christ,
daß Du Mensch geboren bist
von einer Jungfrau, das ist wahr;
des freuet sich der Engel Schar.«
Kyrieleis.

2. Des ewigen Vaters einig Kind
jetzt man in der Krippen findt;
in unser armes Fleisch und Blut
verkleidet sich das ewig Gut.
Kyrieleis.

3. Den aller Welt Kreis nie beschloß,
der liegt in Marien Schoß;
er ist ein Kindlein worden klein,
der alle Ding erhält allein.
Kyrieleis.

4. Das ewig Licht geht da herein,
gibt der Welt ein' neuen Schein;
es leucht' wohl mitten in der Nacht
und uns des Lichtes Kinder macht.
Kyrieleis.

5. Der Sohn des Vaters, Gott von Art,
ein Gast in der Welt hie ward
und führt uns aus dem Jammertal;
er macht uns Erben in seim Saal.
Kyriel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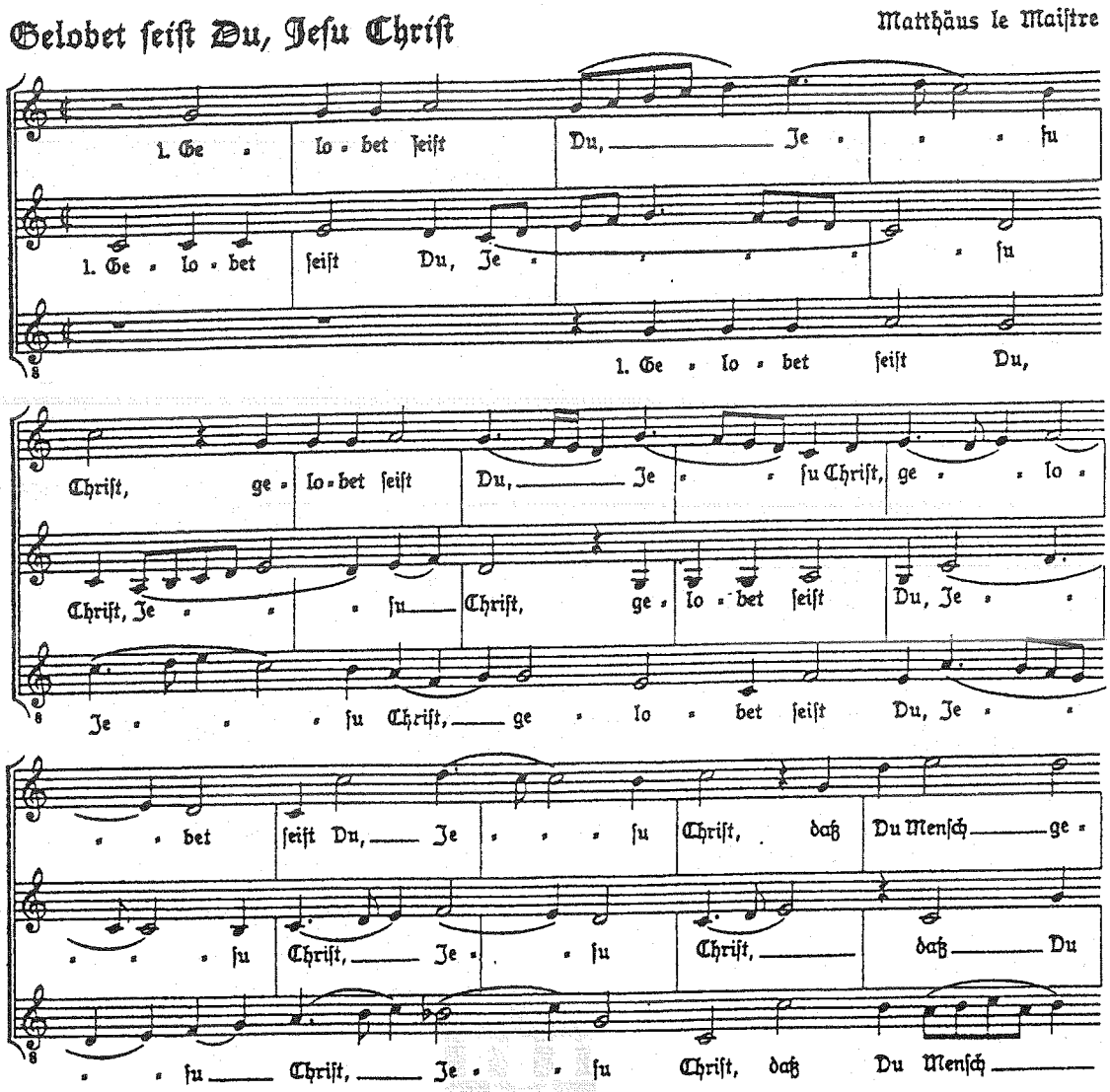
6. Er ist auf Erden kommen arm,
daß er unser sich erbarm
und in dem Himmel mache reich
und seinen lieben Engeln gleich.
Kyrieleis.

7. Das hat er alles uns getan,
sein groß Lieb zu zeigen an.
Des freu sich alle Christenheit
und dank ihm des in Ewigkeit.
Kyrieleis.

Luther의 원본이며 Mixolydian mode on C 이다.

① Matthäus le Maistre

악보16)



Matthäus le Maistre 의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는 3성부이며 박자는 4/4 박자이고 주요리듬은 로 되어 있으며 Mixolydian mode on C이다.

Matthäus le Maistre (1505－1577)

네델란드의 보수적인 작곡가였으며 Luther 教會의 改宗에서 Johann Walter와 Georg Rhau 의 진정한 新教的인 전통을 받아 들였다.

그의 미사곡들은 1500년 이전의 네델란드 풍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풍자와 정선율로 된 것이다.

또한 그의 성가곡들을 보면 그의 간단한 단선율곡에서 정선율과 모방을 사용하는 굉장한 무반주의 다성 성가곡에 이르기 까지 아주 폭이 넓은 작곡기법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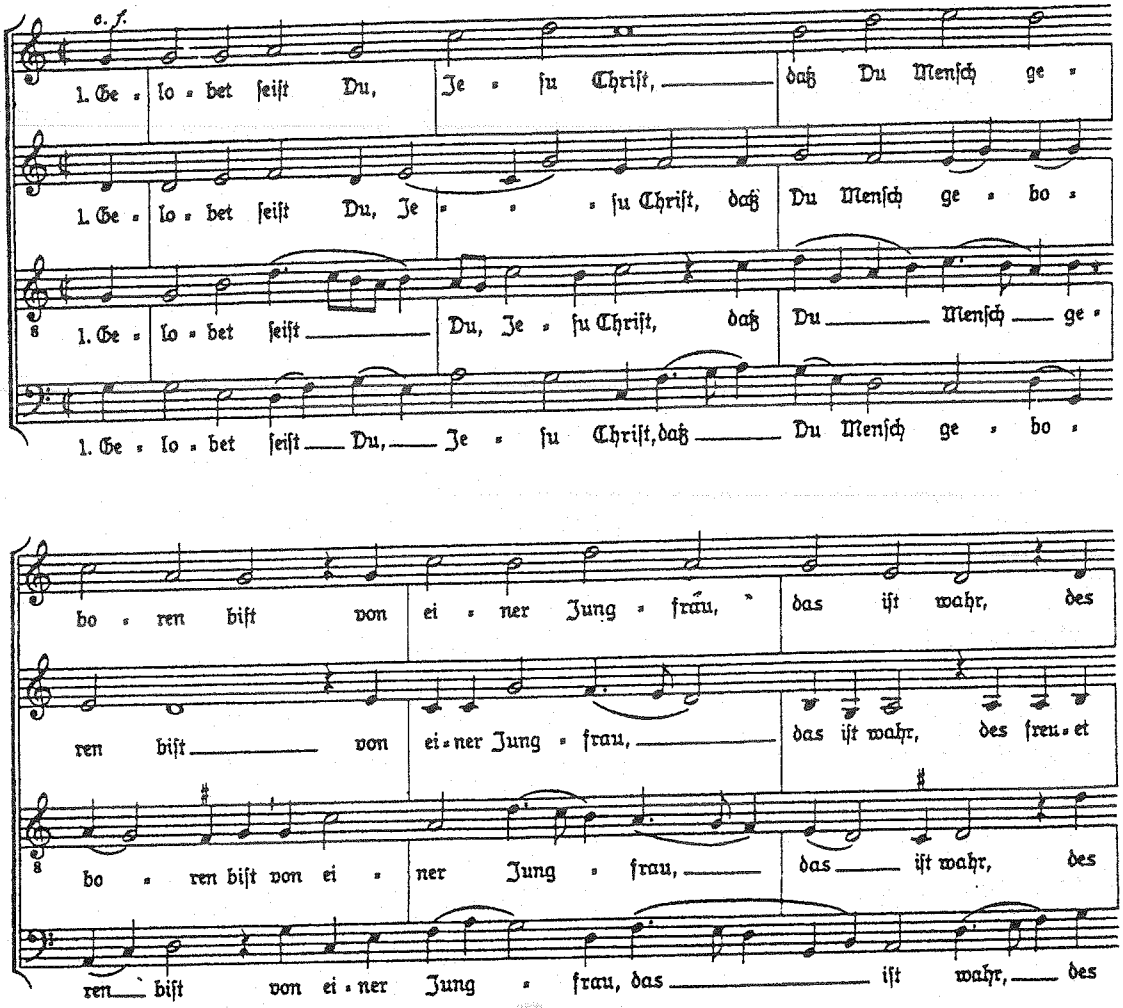
1577년에 나온 좀 더 현대적인 그의 두번째 작품집의 가사들은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교훈적이며 낭독조의 이 가사들은 많은 수가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었으며 이 歌詞들은 그의 人文主義的이고 教育的인 경향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② Johann Walter

악보 17)

Gelobet ſeiſt Du, Jeſu Chriſt — Johann Walter



Johann Walter의 Gelobet Seist Du , Jesu Christ는 4 성부이며 박자는 2 / 2 박자이고 주요리듬은 ♩ ♪♪♩♪♪♩♪♪♩ 이며 Mix-olydian mode on C 이다.

Johnn Walter(1486 - 1543)

獨逸의 프로테스탄트 초기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이며 베이스 가수로 궁정 악단에서 봉직하다가 토르가우 라틴어 학교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다.

Luther의 협력자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음악의 정비에 전력하였으며 작곡기법은 플랑드로 악파의 Polyphony 양식을 따르고 있다.

Luther의 서문으로 시작된 성가집 「Geystliches gesangK Buchleyn」은 獨逸 Protestant 최초의 성가집으로서 音樂史的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는 Torgau Walter Manuscript에 있는 音樂의 部分들을 구성하고 교정하며 작곡까지 했다.

1524 년경에 그는 LUther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뿐아니라 1525 년에는 German Mass에 對하여 助言을 하기도 했다.

Walter는 독일 讚頌歌의 音樂과 歌詞의 明匠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한정된 것을 克服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의 주제와 5 - 7 명의 목소리를 이용한 技巧的인 곡과 1557 년의 Magnifi -cat배경의 어느정도 구식풍의 曲들을 많이 작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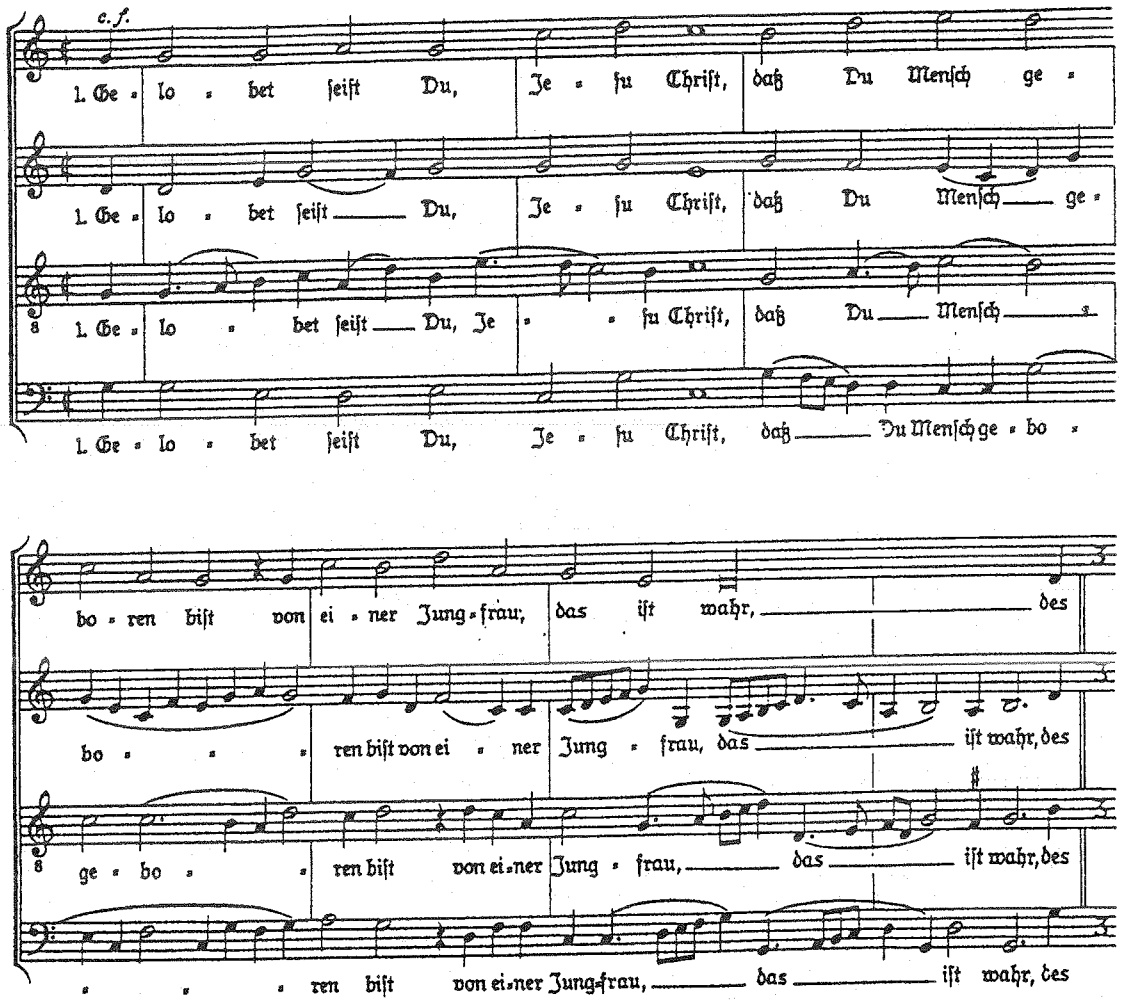
그의 不協 Suspensions의 자유로운 이용은 그의 작곡가로서의 커가는 야망을 증명해주고 있다.

3rd와 6th에 강조를 둔 독일 배경의 音色은 Isaac에 기원을 둔 것인 반면에 그의 Clausulas의 사용 증가에 있어서는 그 時代의 스타일과 대응한다. 1566 년 Song Motets는 후세 독일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③ Ungenannter Meister

악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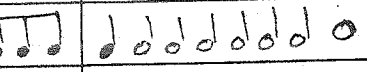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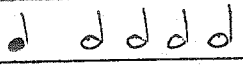
Gelobet ſeiſt Du, Jeſu Chriſt — Ungenannter Meiſter



Ungenannter Meister의 Gelobet Seist Du,Jesu Christ는 4성부이며 2 / 2 박자의 주요리듬은 ♩ 𝅗𝅥 𝅗𝅥 𝅗𝅥 𝅗𝅥 이며 Mixolydian mode on C 이다.

위의 것들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Gelobet Seist Du,Jesu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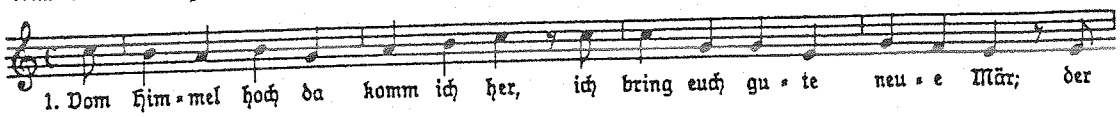
작곡자	Matthaus — Maistre	Johann Walter	ungenannter — Meister
성부수	3 성 부	4 성 부	4 성 부
박 자	4 / 4	2 / 2	2 / 2
주요리듬			
조 성	Mixolydian on C	Mixolydian on C	Mixolydian on C
특 징	8 분음표, 4 분음표 2 분음표	주로 2 분음표만사용	2 분음표와 8 분음표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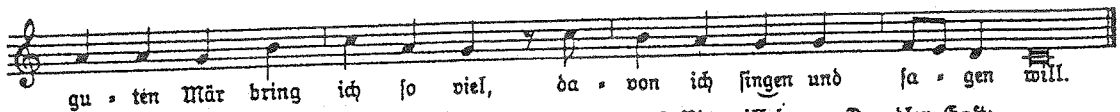
C.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악보 19)

Ein Kinderlied auf die Weihnachten vom Kindlein Jesu

Aus dem II. Kapitel des Evangelii St. Lukas gezogen





1.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ich bring euch gute neue Mär;
der guten Mär bring ich so viel,
davon ich singen und sagen will.

2. Euch ist ein Kindlein heut geborn,
von einer Jungfrau auserkorn,
ein Kindelein so zart und fein,
das soll euer Freud und Wonne sein.

8. Bis willekomm, Du edler Gast;
den Sünder nicht verschmähet hast
und kommst ins Elend her zu mir;
wie soll ich immer danken D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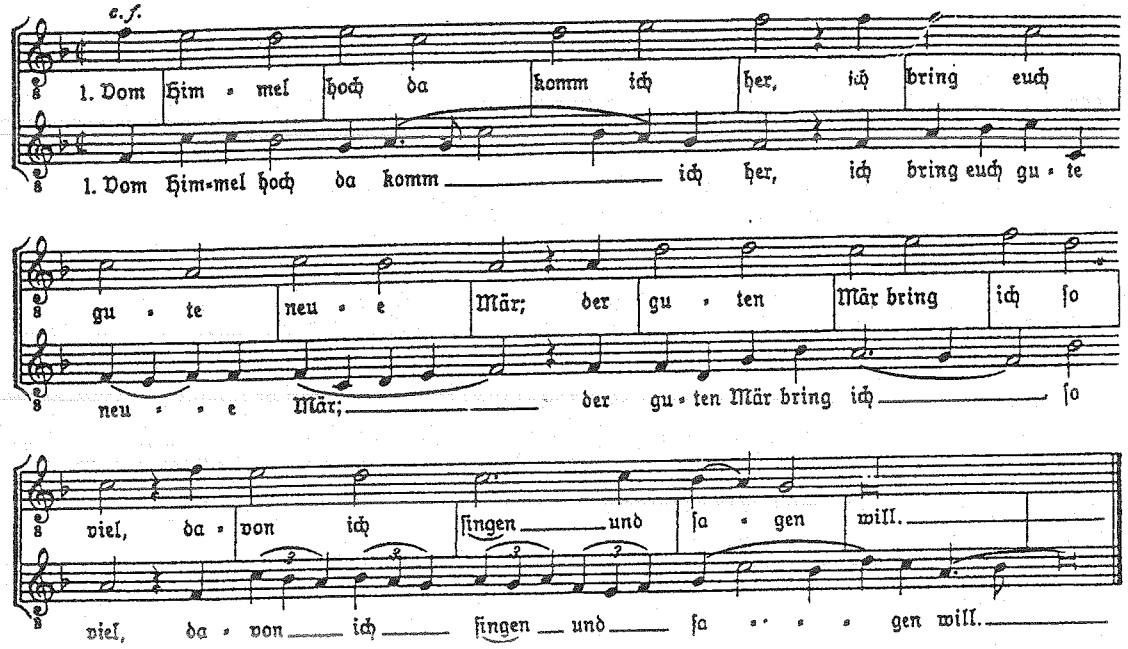
9. Ach Herr, Du Schöpfer aller Ding,
wie bist Du worden so gering,
daß Du da liegst auf dürrem Gras,
davon ein Rind und Esel aß!

Luther의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의 원본인데 가사가 16 절까지 있으며 Ionian mode on C 이다.

① Kaspar Othmayr

악보 20)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 Kaspar Othma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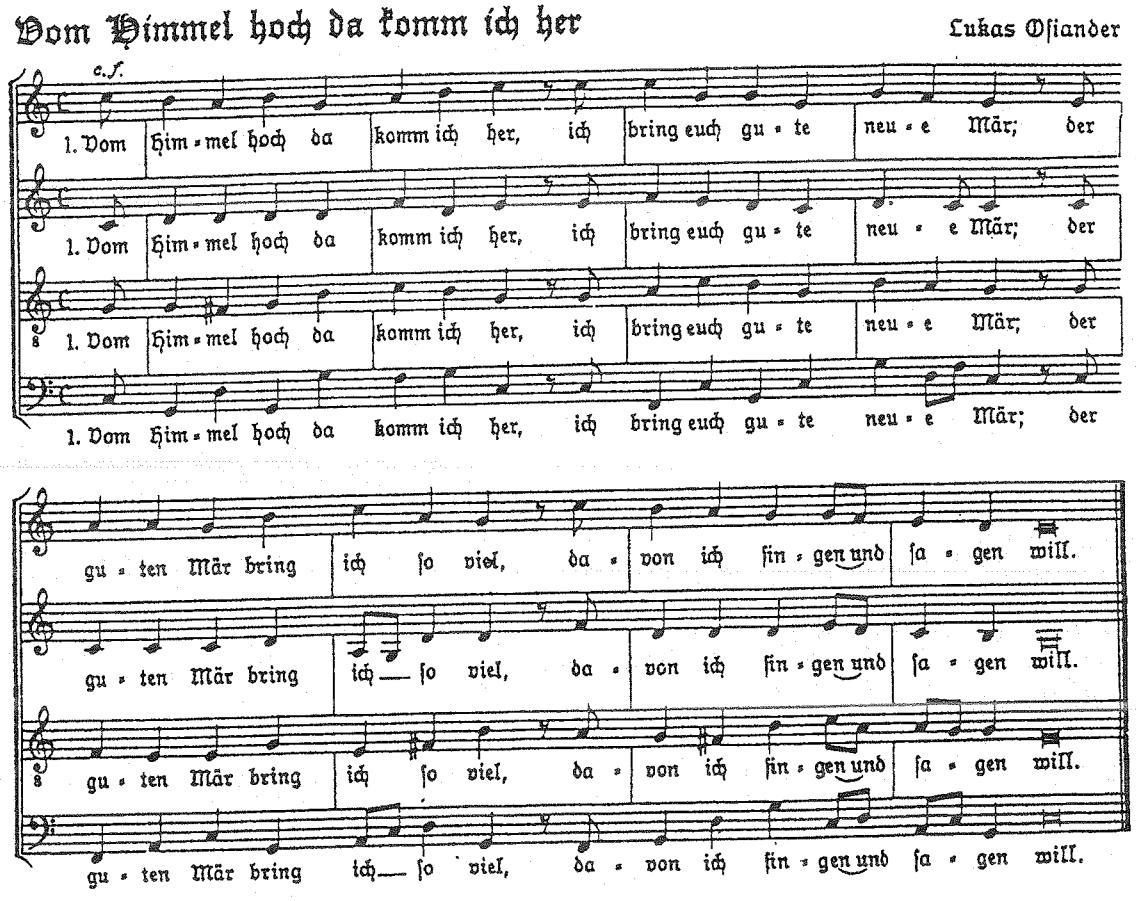
Kaspar Othmayr의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는 2성부의 2 / 2박자이며 주요리듬은 ♩ ♩♩♩♩♩ ♩.♩.♩ 이고 Ionian m-ode on F이다.

Kaspar Othmayr(1515 - 1553)

독일의 작곡가이며 Senfl과 Walter에 이어지는 세대의 중요한 작곡가로서 교회 음악 및 世俗歌曲에 걸쳐 약 230곡의 作品이 있으며 그중에 중심을 이루는 多聲의 Lied는 獨逸 Leid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Othmayr의 최초의 인쇄물은 그가 Lutheranis-m을 주장한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② Lukas Osiander

악보 21)



LuKas Osiander의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는 4성부이고 4／4박자이며 주요리듬은 ♪ ♩ ♩ ♩ ♩ 이고 Ionian - mode on C이다.

Lukas Osiander (1534 - 1604)

독일의 신학자이며 작곡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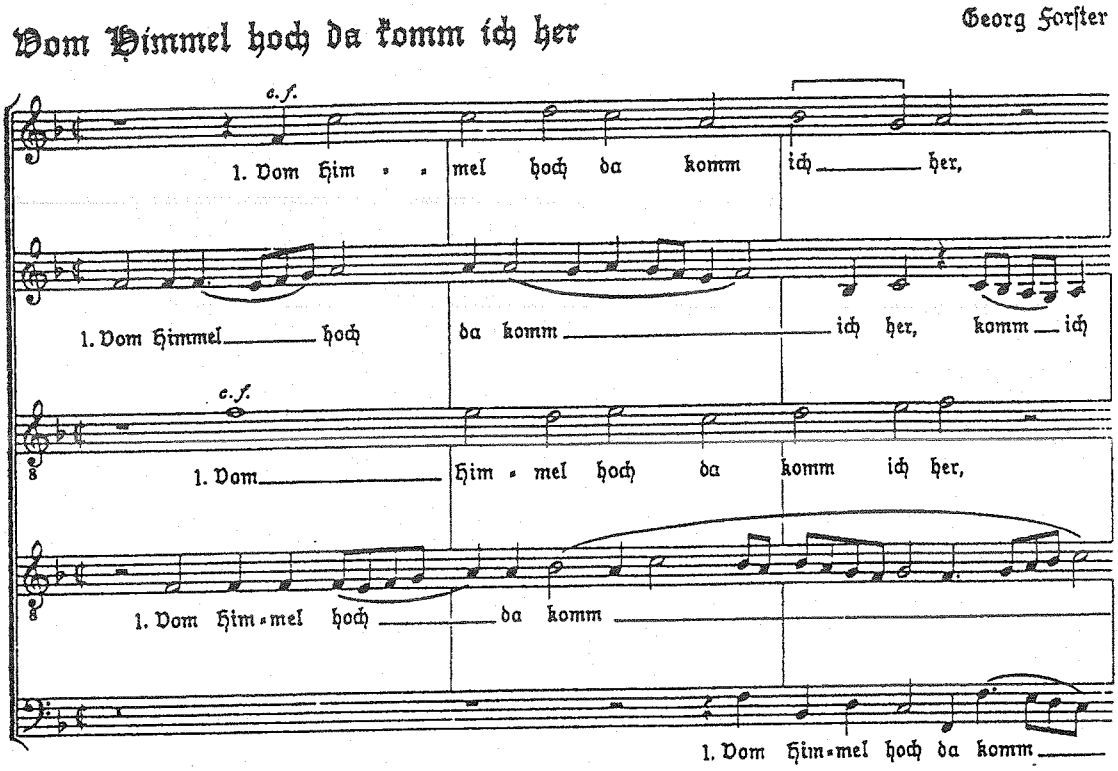
합창단이나 회중들이 쉽게 어울려 부를수 있는 순수 單音的인 歌唱을 구

성했으며 定旋律을 테너에게 부여하는 改革된 音律 讚頌曲과는 달리 소프라노에 부여했다.

그가 쓴 Organ에 관한 2개의 보고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그의 音樂的 자질을 보여준다.

③ Georg Forster

악보22)



Georg Forster의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의 악보인데 5성부로 되어있고 2 / 2박자이며 주요리듬은 이고 Ionian mode on F이다.

Georg Forster(1510 - 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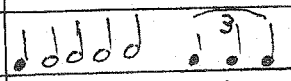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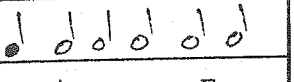
독일의 편집자 겸 작곡가이며 완전한 歌詞 전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특히 테너 가사에서 나타나는 초기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부수적인 소리를 가사화 했는데 가사가 부족 하거나 적합치 않을때는 자신이 직접 歌詞를 써 넣기도 했다.

편집자와 수집가로서의 Forster의 작품의 중요성은 그의 생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많은 작곡가들이 그의 Frische teutsche Liedlein을 독일 가곡의 기초 자료로서 17 C에 많이 사용했다.

위의 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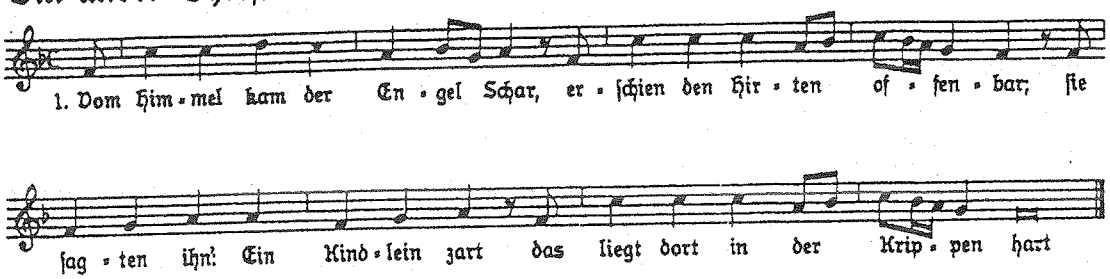
표 4)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작 곡 자	Kaspar Othmayr	Lukas Osiander	Georg Forster
성 부 수	2 성 부	4 성 부	5 성 부
박 자	2 / 2	4 / 4	2 / 2
주요리듬			
조 성	Ioniar on F	Ionian on F.	Ionian on F
특 징	2분음표 셋잇단음표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8분음표

D.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악보 23)

Ein ander Chriſtlied



1.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erſchien den Hirten offenbar;
ſie ſagten ihn': Ein Kindlein zart
das liegt dort in der Krippen hart

2. zu Bethlehem in Davids Stadt,
wie Micha das verkündet hat;
es iſt der Herre Jeſus Chriſt,
der euer aller Heiland iſt.

3. Des ſollt ihr billig fröhlich ſein,
daß Gott mit euch iſt worden ein;
er iſt geborn euer Fleiſch und Blut,
euer Bruder iſt das ewig Gut.

4. Was kann euch tun die Sünd und Tod?
Ihr habt mit euch den wahren Gott.
Laßt zürnen Teufel und die Höll,
Gotts Sohn iſt worden euer Geſell.

5. Er will und kann euch laſſen nicht,
ſetzt ihr auf ihn euer Zuverſicht.
Es mögen euch viel fechten an:
dem ſei Trotz, ders nicht laſſen kann.

6. Zuletzt müßt ihr doch haben recht,
ihr ſeid nun worden Gotts Geſchlecht.
Des danket Gott in Ewigkeit
geduldig, fröhlich allez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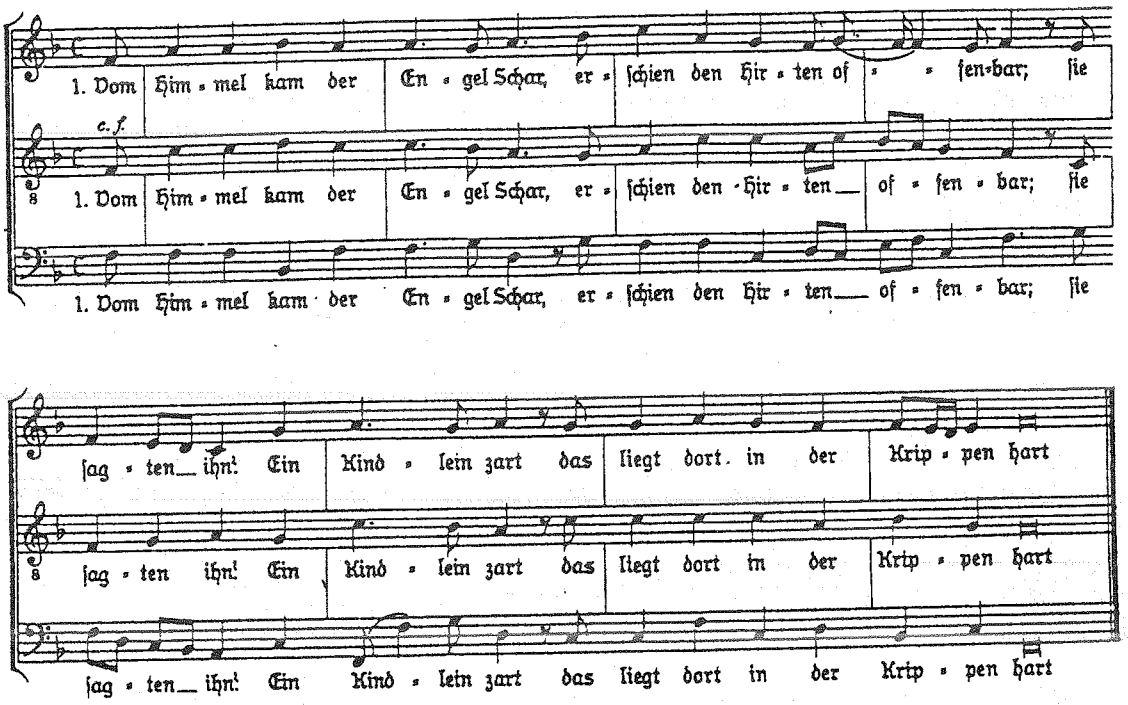
Luther의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의 원본이며

Ionian mode on F이다.

① Valentin Triller

악보 24)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 Valentin Triller



Valentin Triller의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의 악보인데 3 성부로 되어있으며 4/4 박자이고 주요리듬은 ♪ ♩ ♩ ♩ ♩ 이며 Ionian mode on F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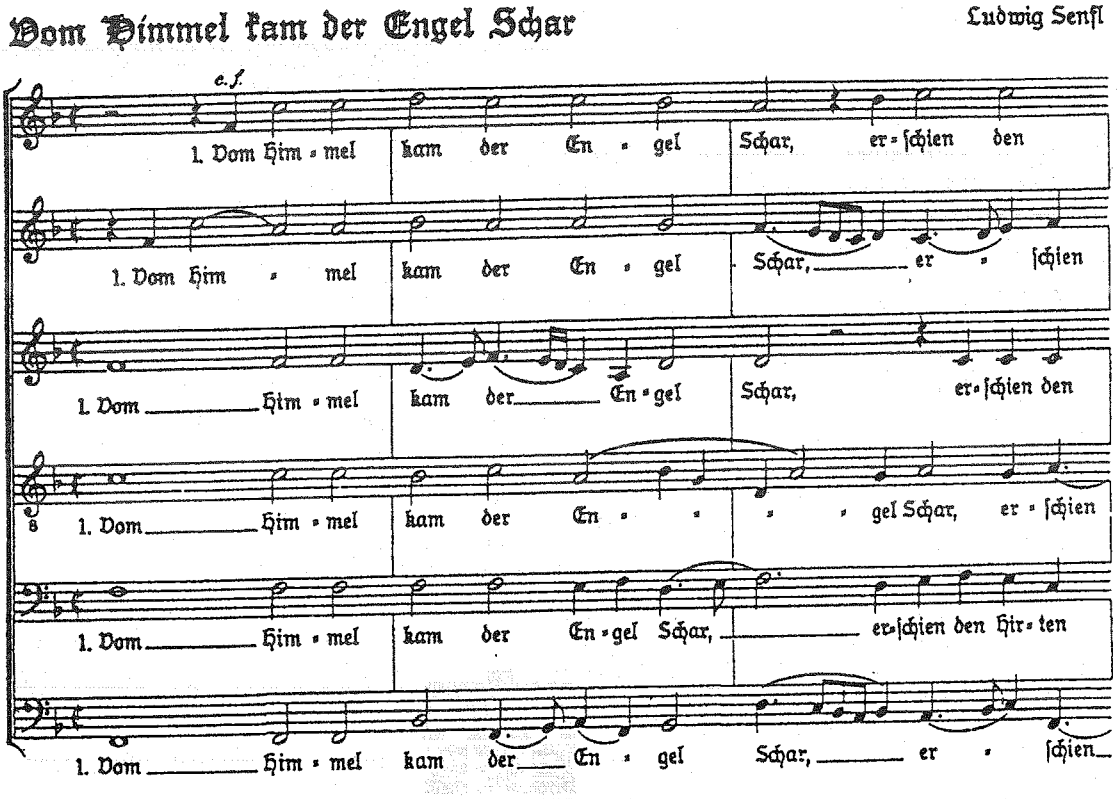
Valentin Triller (? - 1573)

독일의 목사겸 편집자이며 Luther의 讚頌歌를 편집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이 다른 편집자에 의해 다시 인쇄되었기에 중요하다.

Triller의 자료는 찬송가나 성경구절이었는데 13개의 찬송가를 독일 노래로 바꾸어 놓았다.

② Ludwing Senfl

악보 25)



Ludwig Senfl의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의 악보이며 6성부의 2 / 2 박자이고 주요리듬은 이며 Ionian mode on F이다.

LUdwig Senfl(1486 - 1542)

독일에서 활동한 스위스의 작곡가로서 宗教改革 동안에 독일어 사용권에서 다성 독일가곡과 종교적 Motet에서는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다성 독일 가곡은 약 250곡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으며 간단한 형식의 Polyphony에서 복잡한 Canon까지 폭 넓은 작풍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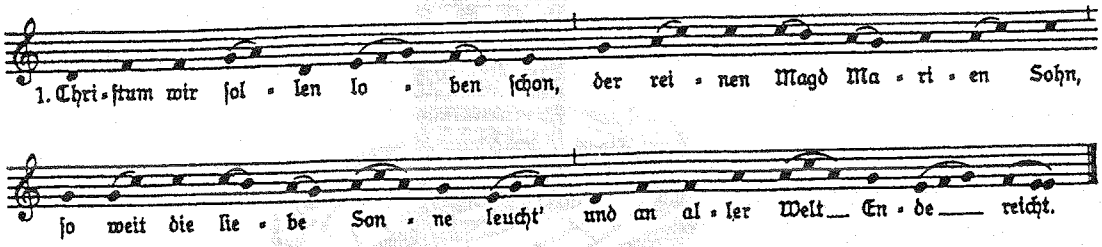
표5)

작곡자	Valentin Triller	Ludwig Senfl
성부수	3 성부	6 성부
박자	4 / 4	2 / 2
주요리듬		
조성	Ionian on F	Ionian on F
특징	점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점4분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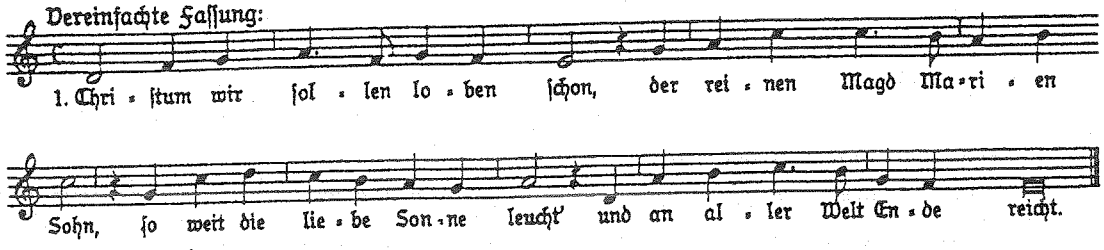
E.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악보 26)

Der Hymnus A solis ortus cardine verdeutscht



악보 27)



1. Christum wir sollen loben schon,
der reinen Magd Marien Sohn,
so weit die liebe Sonne leucht'
und an aller Welt Ende reicht.

2. Der selig Schöpfer aller Ding
zog an eins Knechtes Leib gering,
daß er das Fleisch durchs Fleisch erwürb
und sein Geschöpf nicht ganz verdürb.

3. Die göttlich Gnad vom Himmel groß
sich in die keusche Mutter goß.
Ein Maidlein trug ein heimlich Pfand,
das der Natur war unbekannt.

4. Das züchtig Haus des Herzens zart
gar bald ein Tempel Gottes ward,
die kein Mann rühret noch erkannt,
von Gotts Wort man sie schwanger fand.

5. Die edle Mutter hat geborn,
den Gabriel verhieß zuvorn,
den Sankt Johanns mit Springen zeigt,
da er noch lag im Mutterleib.

6. Er lag im Heu mit Armut groß,
die Krippen hart ihn nicht verdroß,
es ward ein kleine Milch sein Speis,
der nie ein Vöglein hungern lie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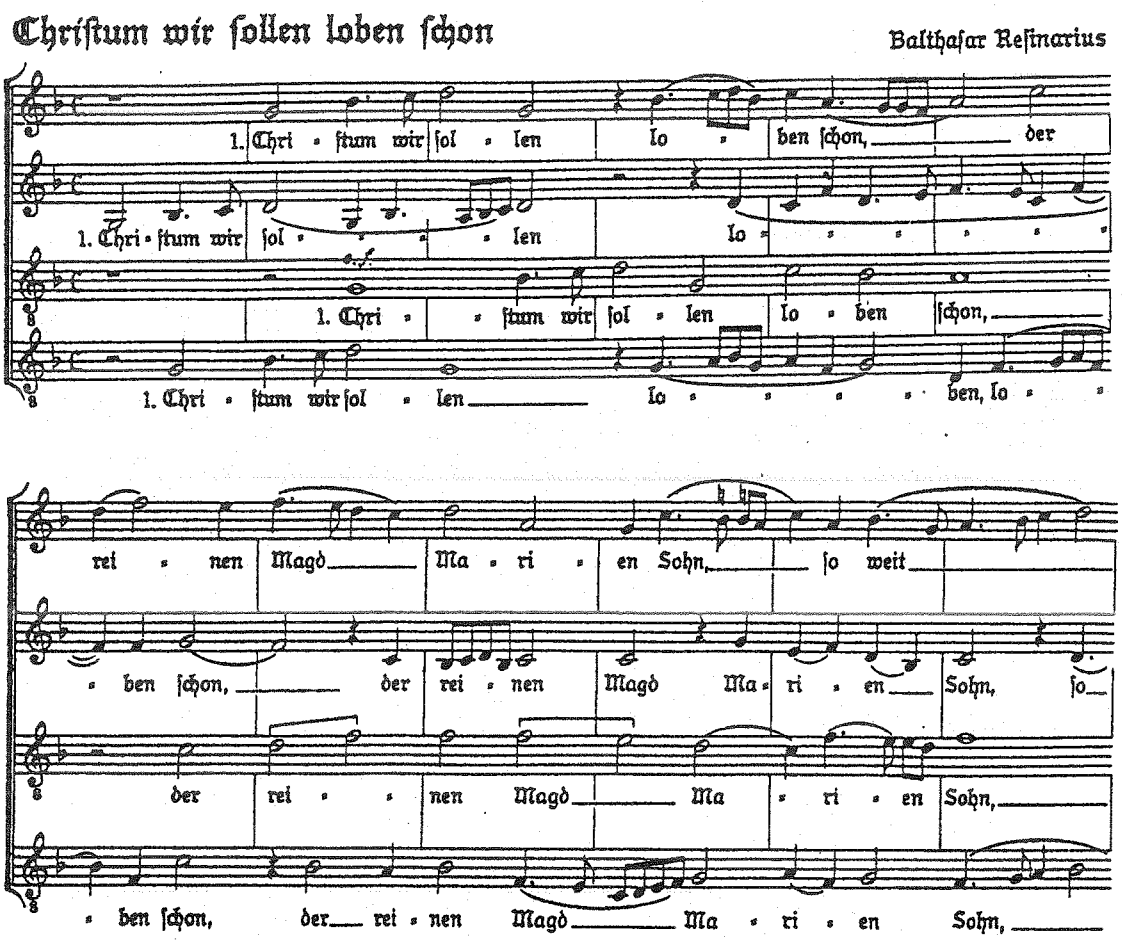
7. Des Himmels Chör sich freuen drob,
und die Engel singen Gott Lob;
den armen Hirten wird vermeldt
der Hirt und Schöpfer aller Welt.

8.»Lob, Ehr und Dank sei Dir gesagt,
Christ, geborn von der reinen Magd,
mit Vater und dem Heilgen Geist
von nun an bis in Ewigkeit.«

Luther의 원본이며 Aeolian mode on C이다.

① Balthasar Resinar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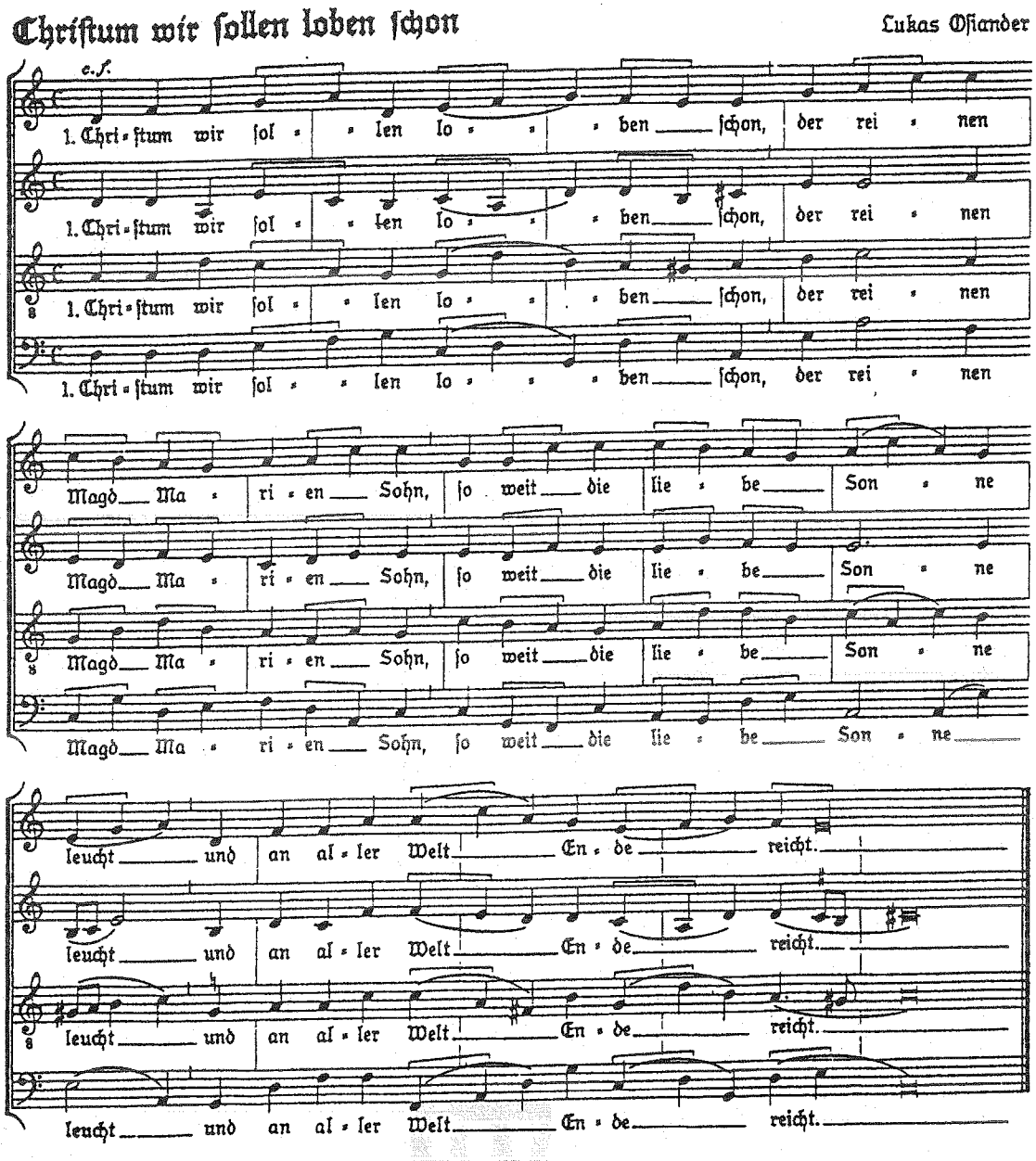
악보 28)



Balthasar Resinarius의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의 악보이며 4성부의 4/4박자이고 주요리듬은 ♩ ♩. ♪ ♩ ♩이며 Phrygian mode on F이다.

② Lukas Osiander

악보 29)



Lukas Osiander의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의 악보이며 4성부의 4/4박자이며 주요리듬은 ♩ ♩ ♩ ♩ ♩ ♩ ♩ 이고 Aeolian mode on C이다.

위의 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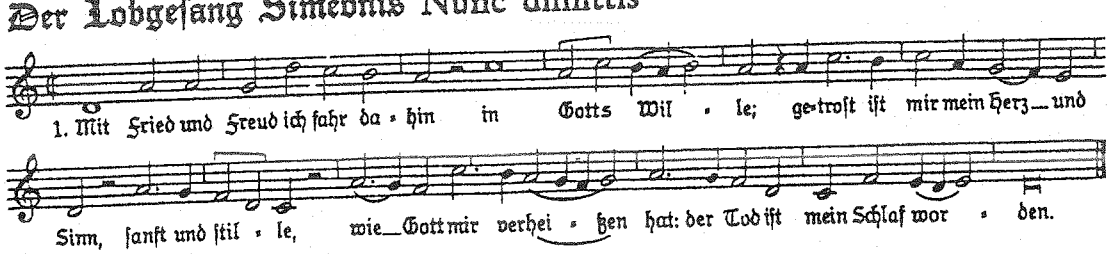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표 6)

작 곡 자	Balthasar Resinarius	LuKas Osiander
성 부 수	4 성 부	4 성 부
박 자	4 / 4	4 / 4
주요리듬		
조 성	Phrygian mode on F	Aeolian mode on C
특 징	2분음표, 점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F.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악보 30)



1.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in Gotts Wille,
getroſt iſt mir mein Herz und Sinn,
ſanft und ſtille,
wie Gott mir verheißen hat:
der Tod iſt mein Schlaf worden.

2. »Das macht Chriſtus, wahr' Gottes Sohn,
der treu Heiland,
den Du mich, Herr, haſt ſehen lan
und macht bekannt,
daß er ſei das Leben
und Heil in Not und Ster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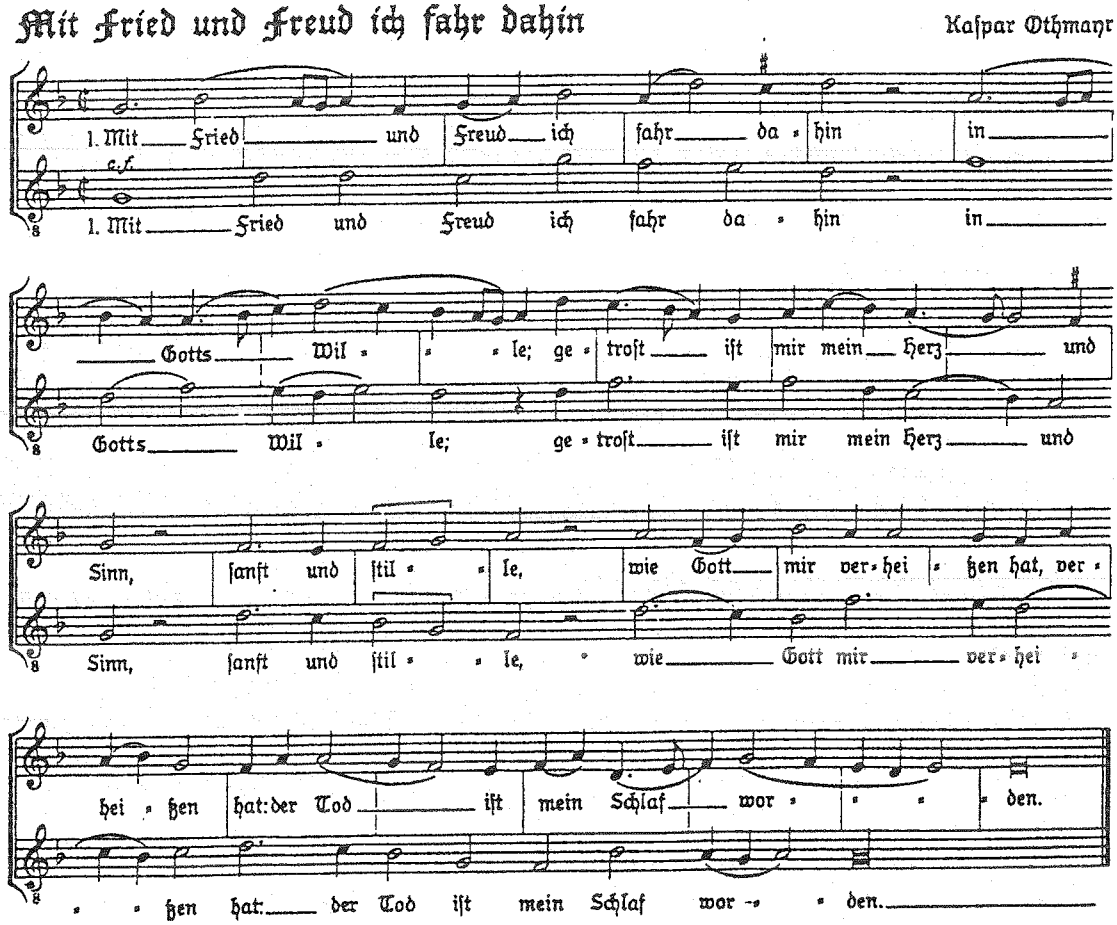
3. Den haſt Du allen vorgeſtellt
mit großr Gnaden,
zu ſeinem Reich die ganze Welt
heißen laden
durch Dein teuer heilſam Wort,
an allem Ort erſchollen.

4. Er iſt das Heil und ſelig Licht
für die Heiden,
zu erleuchten, die Dich kennen nicht,
und zu weiden.
Er iſt Deins Volks Iſrael
der Preis, Ehr, Freud und Wonne.«

Luther의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의 원본이며 Aeolian mode on C이다.

① Kaspar Othma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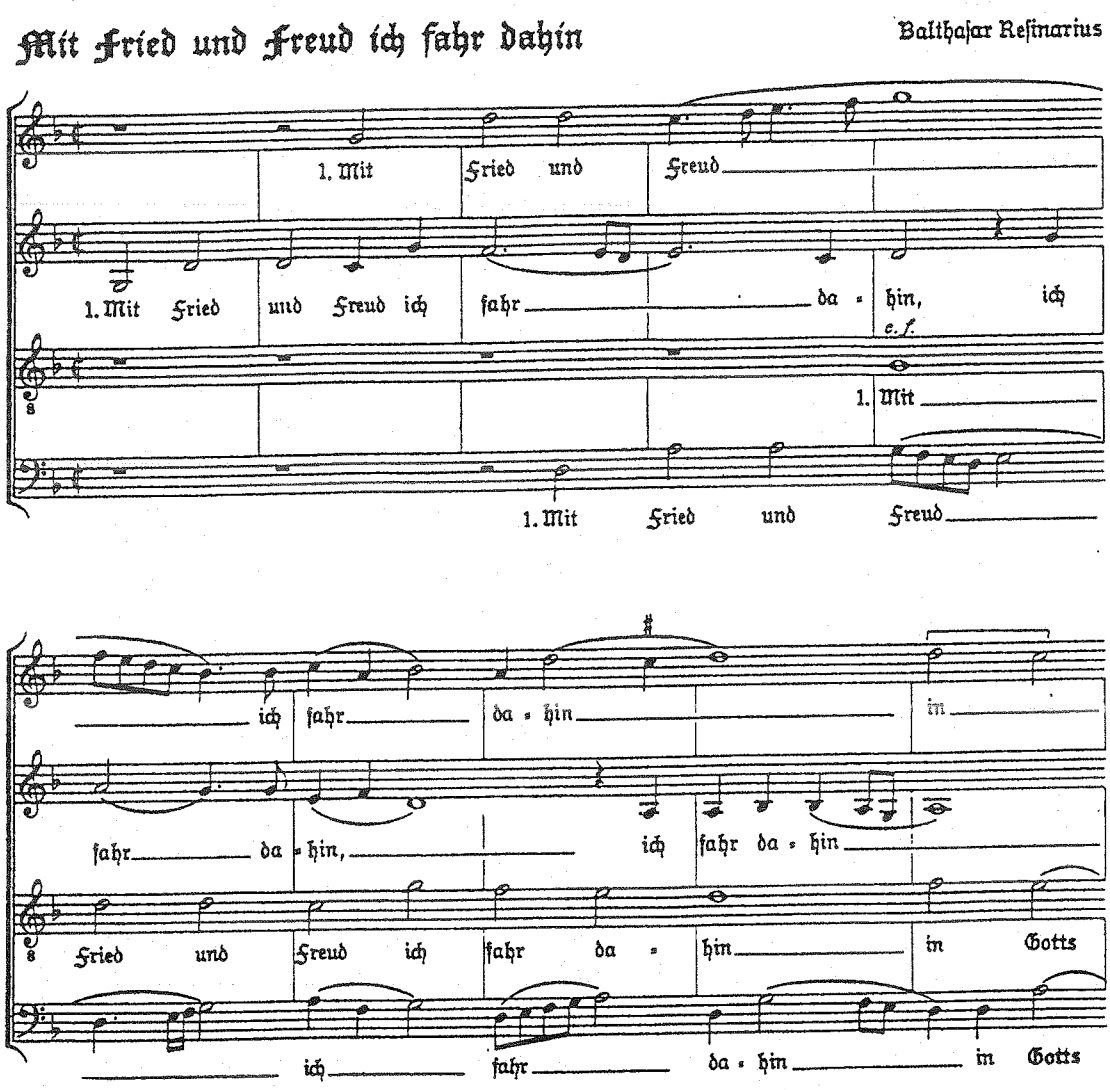
악보 31)



Kaspar Othmayr의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의 악보이며 2성부의 2/2박자이고 주요리듬은 𝅗𝅥. 𝅗𝅥 𝅘𝅥𝅮 𝅗𝅥. 𝅗𝅥 𝅗𝅥이며 Mix-olydian mode on F이다.

② Balthasar Resinarius

악보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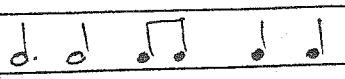


Balthasar Resinarius의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의 악보이며 4성부의 2 / 2박자이고 주요리듬은 𝅗𝅥 𝅗𝅥 𝅗𝅥 𝅗𝅥. 𝅘𝅥𝅮 𝅗𝅥. 𝅘𝅥𝅮 이며 Mixolydian mode on F이다.

위의 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표7)

작 곡 자	Kaspar Othmayr	Baltasar Resinarius
성 부 수	2 성 부	4 성 부
박 자	2 / 2	2 / 2
주요리듬		
조 성	Mixoldian on F	Mixolydian on F
특 징	8분음표, 점2분음표	2분음표 점4분음표 , 8분음표

Ⅲ. 結　　論

첫째, 宗敎改革 당시에는 敎會族法이 敎會音樂과 世俗音樂과 世俗 音樂의 양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長調와 短調의 調性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태동되고 있었다.

둘째, 宗校改革의 산물로서 태어난 Chorale은 多聲音樂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됨으로 音樂史上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셋째, 한 음절에 歌詞를 많이 붙인 형태인 Syllabic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많이 백성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함이었다.

넷째, 복음전파의 목적과 젊은이들의 신앙적 교육 및 민족적 음악의 창출을 위해 민요 및 오래된 聖歌에서 따온 곡들은 현재 독일 Lied의 모체가 되었다.

다섯째, Luther는 학교 교과과정 음악부문에 최초로 「讚頌」이라는 과목을 넣은 音樂 교육자 였다.

여섯째, 宗敎改革 당시의 敎會 合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1. 박자는 주로 2 / 2나 4 / 4를 사용했다.

2. 성부는 2 성부에서 6 성부까지 편곡되었다.

3. 교회선법은 Dorian.Mixolydian. Ionian. Phrygian. Aeolian mode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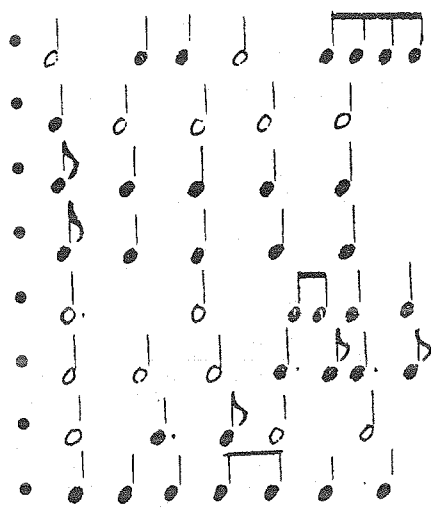
4. 당시에는 교회선법과 조성 음악이 병행되고 있던 혼란의 시대 였으며 주로 사용된 조성은 F Major, C Major였다.

5. 주로 사용된 리듬은 다음과 같다.

(Joachim Heller)

(Balthasar Resinarius)

(Antonius Scandellus)



(Matthaus Maistre)
(Johann Walter)
(Lukas Osiander)
(Valentino Triller)
(Kaspar Othmayr)
(Balthasar Resinarias)
(Balthasar Resinarius)
(Lukas Osiander)

일곱째 宗敎改革 時代의 Chorale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단선율 音樂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敎會에 多聲 音樂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2. 敎會 族法에서 부터 調性 音樂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獨逸 Lied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4.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찬양 할 수 있게 되었다.

參 考 文 獻

김명혁 :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지남. 1977.

김성식 :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논단. 9.10 집.

김진균 : 서양 음악사, 서울, 태림출판사. 1986.

김철륜 : 교회 음악론, 호산나 음악사. 1990.

원진희 : 교회 음악약사, 대한 기독교서회, 1971.

이유선 : 기독교 음악사,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77.

지원용 : 루터의 사상, 서울. 킨콜디아사, 1982.

루터의 교회관, 배한국편, 서울, 킨콜디아사, 1983.

루터와 종교개혁, 배한국편, 킨콜디아사 1965.

홍정수 : 교회음악 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8.

홍치모 :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이성삼 : 서양음악사, 정음문화사,

기독교대사전 , 기독교문사

The Globe Dictionary

음악대사전, 신진출판사

음악인명사전, 세광출판사

신·구약성서

Bainton. R.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1952.

Cheol Ryun. Kim. Luthers Lieder W-Germany. Passan. 1987.

Ernst. Achelis. Die Entstehungszeit von Luthers geistlichen Liedern. Marburger Universitätsprogramm. 1883.

Karl. Hauschildt. Das christuszeugnis in Luther weihnachtslied. In: Luther. Mitt. d. Luther-Ges. 25. 1954.

Jenny. Karkus. Luthersgeistliche Lieder und Kirchengesänge. Köln-Wien. 1985.

Kristeller. P. O. Renaissance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61.

Latourett. K. S. A History of Christianty. New York: Harper & Row. 1953.

Miller. H. M. History of Music. New York: Barnes & Noble Books. 1973.

Gerhard, Hahn. Luthers Lieder. Regensburg. 1983.

Konrad. Ameln. Das deutsche Weihnachtslied der Reformation Musik and kirche. 1980.

. Luthers Kirchenlieder in Tonsätzen Seiner Zeit Kassel. 1934.

Walter. Blankenburg. Luther und die Musik. Luther Mitt. Luther-Ges. 28, 1957.

Wilhelm. Lucke, (Hrsg) Die Lieder Luthers. Weimarer Ausgabe. Bd. 35, Weimar, 1923. (W.A)

Wackernagel. Philipp. Martin Luthers geistliche Lieder mit dem Zu Seinen Lebzeiten gebräuchliensingweisn. Stuttgart. 1848.

190 E. K. G.

(Evangelische Kirchen Gesangbuch)

Chorale . Nun Komm, der Heiden He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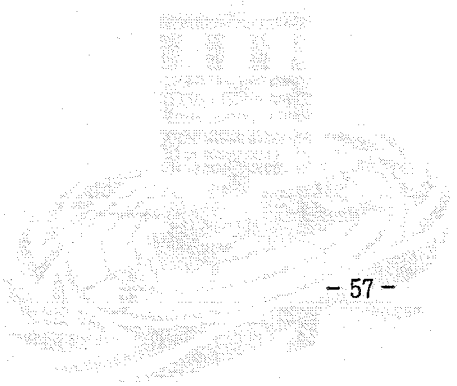
.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

. Christum mir sollen loben schon,

. Mit fried und freud ich fahr dahin.



Secondly, Chorale which is a product Reformation created a great progress of Polyphony and marked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music.

Thirdly, this music is a type containing lots of verses in an a syllable. And the objective of such syllable was to transmit as much message of God to the people as possible.

Fourthly, the songs which have been chosen out of folk ballads and old psalm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means for transmitting Gespels, religious education of the youngsters and national music formed the core of contemporary music of Germany.

Fifthly, Luther was the first educator of music who included the subject of psalms in the music curricula of school.

Sixthly, the church chorale at the time of Reformation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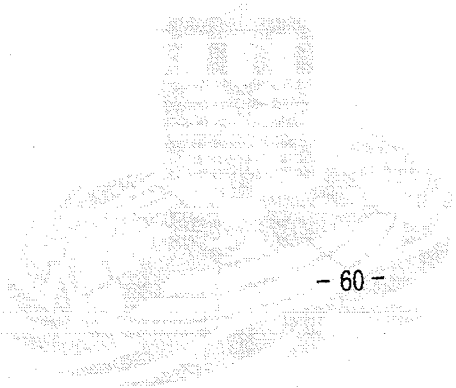
1. Times used primarily were either 2/2 or 4/4.
2. From 2nd Part through 6th Part had been arranged.
3. The church mode contained mainly Dorian Mode, Mixolydian Mode, Ionian Mode, Phyrgian Mode and Aeolian Mode.
4. At that time Church Mode and Harmonic Music had been predominating and main keys were F Major and C Major.

Seventhly, Chorale in the age of Reformation left a great impact to posterity.

(1) To the church being dominated by Gregorian Chant progress

of Polyphony was added.

(2) From church mode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harmonic music.

(3) It created progress of German lied.

(4) Luther's "Theory of Priesthood by Everybody" enabled all the people praise the Lord in firsthand.